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발행·편집인: 오 거 든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 본부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O/T 411호  
편집 / 제작: 경남중고동창회보 편집실  
Tel, (051)245-7551~3 / Fax, (051)245-7550

# 본부동창회 집행부 출정식 성대 거행

## 회장단 기별 지역 직능 동호회장 연석회의 오거돈 회장, '젊은 동창회' 위한 임원 확충 내용 발표

### 자문위원단 75명, 부회장단 90명으로 크게 늘려 31회 이후 기수 동문들 대거 발탁돼

본부동창회(회장 오거돈)는 7월 5일 저녁 코모도호텔 대연회장에서 본부회장단 및 기별·지역·직능·동호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제32대 동창회 집행부 출정식을 성대하게 거행했다. '다이내믹 경남중고동창회'와 '젊은 동창회'를 내건 '오거돈 체제'가 본격 출범했음을 알리는 자리였다.

자문위원, 본부 부회장, 각 기별회장 동호회 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연석회의에서 오거돈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위임 받은 임원 총원작업 결과를 발표하고 모교와 동창회 70년사 편찬 사업 등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했다.

오 회장은 임원 선임과 관련, "소수의 참여와 봉사에만 의존하는 동창회가 아니라 보다 많은 동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기 위해 기존 9명인 자문위원단을 75명으로 확충(당연직인 기별회장 17명 포함)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회장단 구성을 보면 기존 36명인 부회장단이 당연직인 기별회장 30명을 포함해서 90명으로 늘어났고 본과담당 부회장단에 류명석 동문(31회·총무)을 비

롯, 박명진(33회·조직), 장인화(35회·사업), 정윤성 동문(35회·홍보) 등 31회 이후 기수 동문들이 대거 발탁되었다.

이와 관련, 오 회장은 "30회 이하 젊은 기수의 후배들이 동창회에 나와 선배들과 마음껏 어울리고 함께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후배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아울러 후배들의 활약상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함께 뛰는 다이내믹 동창회로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사업계획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열린 토론을 벌였는데 70년사 편찬 사업은 지체할 수 없는 당면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조속히 실행



오거돈 회장

### 경남고 VS 군상상고 '레전드 리매치' 열린다

#### 35년 전 명승부 재현... 7월 22일 목동야구장에서 최동원, 김봉연 등 '전설의 OB선수들' 대거 출전

'세시봉 신드롬'이 야구에까지 전염되고 있다고나 할까?

지난 1976년 청룡기쟁탈 고교야구대회 결승전에서 명승부를 연출했던 모교와 군상상고 야구부 OB가 35년 만에 재결한다. 이를하여 '2011 레전드 리매치, 경남고 레전드 VS 군상상고 레전드'.

7월 22일 저녁 7시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리는 이 '추억의 야구 잔치'는 교원그룹 상조 브랜드인 <물망초>가 '로멘스 어게인' 캠페인의 일환으로 7080세대의 대표적인 문화 코드로 꼽히는 고교야구를 소재로 하여 기획한 것.

그런데 당초 <물망초>측은 군상상고의 맞상대로 경북고 등을 택하려 했으나 야구 해설가 허구연(24회) 동문이 강력하게 요구하여 모교와 한판 불기로 결정됐다.

76년 청룡기대회 결승전은 '역전의 명수'로 육일승전하던 군상상고를 맞아 '전설적인 초고교급 투수' 최동원(30회) 동문이 탈삼진 20개라는 신화를 연출하며 우승기를 모교에 헌상한, 고교 야구 명승부의 백미로 꼽힌다. 이번 리매치에는 40세 이상의 OB들이 출전하는데 최동원, 김봉연을 비롯하여 양교 스타들이 총출동하고 유명 연예인들의 축하 공연도 곁들이게 된다.

교원그룹은 모교 야구부에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부하고 재학생 응원단용 버스 3대와 동문 응원단용 버스 1대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 경기는 MBC 스포츠TV로 중계될 예정이다.

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고 이태석 동문의 유지기념사업은 부산시 등이 주관하고 있는 기념사업회에 동창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2,3면에 관련 기사>

### 故 이태석 동문 국민훈장 받는다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헌신적인 의료·교육 봉사활동을 펼치다 세상을 떠난 고(故) 이태석 동문(35회, 신부)이 국민추천 포상제를 통해 훈장을 받게 됐다.

정부는 지난 6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추천 포상 수상자로 국민훈장 7명, 국민포장 9명 등 모두 24명을 선정해 포상기로 의결했는데 이 동문이 이들 중 한명으로 선정돼 최고 등급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게 된 것이다.

#### 알립니다

##### <삶의 현장-용마가 달린다> 이번 호부터 연재

이번 호부터 <삶의 현장-용마가 달린다>를 연재합니다. 삶의 현장인 직장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젊은 동문들을 찾아가 그들의 직업적 애환과 희망을 들어보는 기획물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연락 이메일주소=yongmanews@gmail.com

##### <동창회 일꾼들> 이번 호부터 신습니다

우리 동창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동문들을 소개하는 난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이 난을 통해 소개하는 동문들은 본부동창회를 비롯해 각 지역 및 직능동창회, 동기회, 동호회를 위해 '아름다운 봉사'를 하고 있는 동문들입니다. 이들이 있기에 우리 동창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많은 박수로 이들을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회보 편집실>

### 본부덕형포럼 제7회 특강 열려 초청연사는 박맹우 울산시장

본부덕형포럼(회장 정량부,17회)의 제7회 특별초청강연회가 7월 13일 아침 7시 부산 서면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렸다.

각계 동문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

에서는 박맹우 동문(25회, 울산광역시 시장)이 초청연사로 나와 '과감히 도전하라. 도전이 없으면 성공도 없다'라는 제목의 특강을 했다.



박맹우 동문

### 주요기사 안내

- \* 매일경제, 주범들의 출신고교 감춰주려다 '개망신' - 3면
- \* 삼공산악회, '포라이' 소리까지 들으며 주말 산행 10년째 - 5면
- \* <논평> '광주일고와 경남고' - 5면
- \* <삶의 현장... 용마가 달린다> 벤츠 판매하는 오용승 동문 - 7면
- \* '비목' 연주하며 눈물... 심성락 헌정공연 / 가수 최백호 인터뷰 - 12면
- \* "내 어머니는 중국인..." 눈물의 사모곡 펴낸 옥인영 동문 - 13면
- \* "교사이자 선배로 지냈던 꿈같았던 모교 시절" 이길상 동문 - 15면
- \* "전두환 일대기 쓰고는 내 인생이 꼬였다" 천금성 동문 인터뷰 - 16면
- \* <다시 보는 부산③ / 부산역> "사람 구경하는 재미 쏠쏠" - 19면

# “옛날 교복, 명찰, 성적표, 사진 등 무엇이든 보내주세요”

## 경남중 역사자료실 개설 앞두고 동문들에게 협조 당부

모교 경남중학교가 신축 교사에 설치될 역사자료실에 전시할 자료수집에 동문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모교 측에 따르면 현재 보존하고 있는 자료는 각종 대회의 우승기와 컵, 상패 등에 지나지 않아 개교 70년 역사에 견주면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것.

차동렬 교장(24회)은 “마땅히 도서관이 보관하고 있어야 할 교지 <쌍백선>조차 1997년 간행본 1권뿐”이라며 “주요 역사 자료로는 1950년대에 수기로 작성된 모교 연역지가 고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교는 교복, 모자, 명찰, 교과서, 문방구, 공책, 표창장, 성적표를 위시하여 사진, 도시락에 이르기까지 동문들이 재학 시절 보유했거나 사용한 자료,

물건 등 무엇이든지 보내주면 귀중한 자료로 전시하겠다고 밝혔다.

차 교장은 “모교 신축 교사 준공은 제2의 개교와 다를 없다”고 말하고 “동문 각자가 애교심을 발휘하여 후배들에게 소중한 유산이 될 옛 물건들을 찾아서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학교측은 경남고에 견주어 상대적으로 동문들의 관심이 약한 실상이 이번 역사자료실 자료수집 활동을 계기로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신축 중인 새 교사는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오는 8월 중순 새 교사로 이사를 하여 2학기는 새 교사에서 수업을 할 예정이다.

## 부산지역 고교동창회연합회 정기회의

부산지역 고교동창회연합회(총회장 이용흠)의 6월 정기회의가 지난 6월 14일 오후 7시 부산 광안리 아쿠아벨리스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김인세 부산대총장 초청특별강연을 듣고 각 동창회의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경남고 이용흠 교문 △개성고 김정문 교문(총무회장) △동래고 김구태 교문, 이명극 회장 △동아고 강신희 교문, 권혁은 회장 △부경고 김형식 교문 △부산공고 강익구 교문, 오세철 회장 △여고연합회 정은아 총회장 등 7명

## 재경 수석부회장에 전재호 동문(21회)

전재호 동문(21회, 파이낸셜뉴스 회장)이 재경동창회 수석부회장으로 임명됐다.

전 동문은 그동안 덕형포럼회장, 경발위 서울추진본부장을 맡아 활동해왔다.

## 수석부회장에 허범도 동문(22회)

### 대의협력, 문화, 사업 분과 신설

본부동창회는 수석부회장에 허범도 동문(22회)을 선임했다.

또 본부동창회 기구 중 기존의 상임분과위를 없애는 대신 대의협력, 문화, 사업 분과 등 3개 분과위를 신설하는 등 본부동창회에 총 9개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기구개편을 하고 각 분과위원장을 선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자문위원, 부회장의 숫자를 크게 늘리고 이들이 내는 회비를 종전에 비해 대폭 낮추었다.

◇ 본부동창회 주요 임원진

△명예회장 안강태(11회) △회장 오거돈(21회) △수석부회장 허범도(22회) △상근부회장 겸 사무총장 권오균(21회) △기획분과 담당 부회장 강창수(21회) △체육분과 "유재진(22회) △재정분과 "이병찬(23회) △대의협력분과 "송정규(25회) △문화분과 "박상호(26회) △총무분과 "류명석(31회) △조직분과 "박명진(33회) △사업분과 "장인화(35회) △홍보분과 "정윤성(35회)  
◇ 주요 임원들의 회비조정  
△자문위원 100만원 이상 △분과담당 부회장 종전 50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부회장 종전 20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명예부회장, 감사 100만원 이상

## “우수 학생들을 우리 학교로...”

### 모교 김 교장, 부산 16개 중학 교장들 초청해 당부 배재욱 재경 경발위원장도 참석, 각종 혜택 설명

경남고 김원용 교장은 지난 6월 20일 부산 시내 16개 중학교 교장들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수한 중학생들이 경남고에 많이 지원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신동 소재 한 일식집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배재욱 재경 경발위 위원장이 참석,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이 경남고에 진학하면 장학금 지원, 기숙사 입사 등의 혜택이 있으며 동창회에서 멘토·멘티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경남고 관계자들과 강실근 경발위 운영본부장(23회), 이승무 경발위 이사(26회)도 참석했다.

배 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모교를 방



간담회에서 배재욱 위원장(서 있는 사람)이 발언하고 있다.

문, 학생회장 반장 등과의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 덕형리그 야구시합 참가팀 모집

덕형리그(회장 박상호, 26회)가 내년도 덕형 리그야구시합(일명 k-리그)에 참가할 야구팀을 모집하고 있다.

각 기수별로 팀을 짜서 참가하거나 동문들로 구성된 대학동아리팀도 참가할 수 있다. 덕형리그는 현재 8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시합이 진행중인데 내년도에는 참가팀을 16개팀으로 늘려 매달 첫째주 토요일에 경기를 가질 계획이다. 참가신청은 덕형리그 총무 장정석 동문(33회, 010-2560-7975)에게 연락하면 된다.

### 경남중·고 본부동창회 조직표



# “경남중고 발전기금 모금에 앞장서겠습니다.”

## 제 21회 동기회 모교발전기금 모금 현황 (단위:만원)

강수경 300 강창수 1,000 김동우 100 김한규 100 서덕수 300 안채식 100  
여환부 500 오거돈 1,000 윤대희 100 이문수 100 이순희 30 임경범 100  
전우성 500 정영천 200 최원종 500 최재봉 100 최현두 300 한대윤 100

모교 발전과 21회 동기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합니다.

동기회장 최원종 올림

※ 부산은행구좌 086-01-024607-0 경발위이일회

■ ‘매일경제’의 ‘지역 명문 K고’ 보도 파문

# 주범들의 출신 고교 감춰주려다 ‘개망신’ 당했다

## 언론들,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범들의 출신고 ‘흐려서’ 보도 재경동창회, 왜곡보도로 모교 명예훼손한 매일경제에 엄중 항의 뒤늦게 ‘주범들은 광주일고 출신 선후배’로 明記

부산저축은행 부정비리사건은 소수의 광주일고 출신 선후배들이 관여해 비싼 이자를 미끼로 부산 서민들의 돈을 끌어모은 뒤 이를 회계분식 등의 수법으로 나눠 먹는 한편 각종 마구잡이식 부정대출로 전남지역 등에 불법적인 투자를 해 돈을 날린 것이 ‘사건의 본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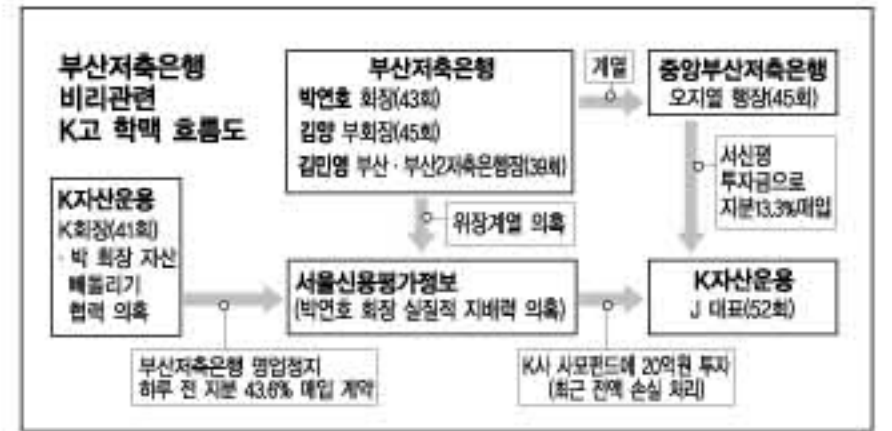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초기에 이 사건을 다루면서 주범들이 광주일고 출신들이란 사실을 애써 감춰주기 위해 ‘특정고교 출신’ 또는 ‘지방 명문고 출신’ 등으로 ‘흐려서’ 보도했다.

특히 매일경제는 지난 5월 5일자 기사에서 ‘부산지역...’

운운하며 광주라는 말이 없이 ‘지역 명문 K고’라고 표현, 사건의 주범들이 ‘피해지역인 부산의 지역명문고인 경남고 출신 선후배들’인 것으로 독자들이 오해하게 만들었다.

이에 우리 재경동창회는 5월 19일 임우근 회장 명의로 매일경제 측에 항의문을 보내고 엄중 항의했다. 또 일부 시민단체들도 신문광고를 내거나 부산 등지에서 집회를 통해 언론들의 ‘광주일고 출신 감춰주기’ 식 보도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이 있자 언론들은 부산저축은행사건의 주범들이 광주일고 출신 선후배들이란 사실을 명기(明



지난 5월5일자 매일경제가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 기사와 함께 보도한 ‘부산저축은행 비리관련 K고 학맥 흐름도’, 핵심 관련자들이 ‘광주일고 출신들’이라는 사실을 감춰주기 위해 ‘K고 학맥’이라는 표현으로 얼버무리고 있다.

記해서 보도하기 시작했다. 뒤늦게나마 언론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보도태도를 바꾼 것이다. 결국 대부분의 언론들이 잔재주를 부리다가 독자들로부터 불신을 자초했고 ‘개망신’을 톡톡히 당한 셈이 됐다.

### ◇ 재경동창회

## “‘지역 명문 K고’? 왜 잔재주 부리나?”

재경동창회(회장 임우근,19회)는 지난 5월 19일 매일경제 발행인 및 편집인 앞으로 보낸 항의문에서 “부산이란 지명 다음에 ‘지역 명문 고교 K고’라고 했으니 누가 봐도 부산의 명문고인 경남고를 연상할 것이다. K고가 광주일고라고 생각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 보도가 우리 모교인 경남고등학교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기에 적절한 시정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는 매일경제가 ‘광주일고’란 이름을 감춰주기 위하여 고의로 ‘광주지역 명문고’라 쓰지 않고 ‘지역 명문고 K고’라고 하여 결과적으로 경남고에 의혹의 시선이 쏠리도록 하였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기사 제목도 <부산저축은행 비리 뒤엔 K고 출신 커넥션?>이라고 적었는데, <부산저축은행 비리 뒤엔 광주일고 출신 커넥션?>이라고 하든지 <부산저축은행 비리 뒤엔 광주명문고 출신 커넥션?>이라고 했어야 옳은 것 아니냐”며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의 핵심인 광주일고 출신 경영진을 보호하려고 다른 학교에 혐의를 떠넘기려는 잔재주는 언론의 정도가 아닐 것”이라고 성토했다.

### ◇ 국민행동본부

## “‘특정고교’로 보도해 경남고에 의혹 쏠리게 해”

시민단체인 국민행동본부도 지난 5월 20일 “부산저축은행 부정 사건의 책임자들은 ‘특정고교 출신’이 아니라 ‘광주일고 출신’이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의 본질은, 광주일고 출신들이 부산저축은행의 경영권을 장악, 부정을 서로 눈감아 주고, 부산 서민들의 예금을 모아, 임직원들의 지인과 친척 및 호남지역에 부실대출, 부실투자를 하여 천문학적 금액을 날린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MBC 등 대다수 언론은 ‘광주일고’라고 명기하지 않고 ‘특정고교’라고 보도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으며, 부산의 명문고인 부산고 및 경남고에 의혹이 쏠리도록 하고 있다”며 “인터넷에서 ‘광주일고의 부산 습격 사건’이라고까지 표현되는 이 사건의 피해자는 부산지역 서민들이고 가해자는 부정을 저지른 광주일고 출신 경영자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국민행동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조선, 동아, 중앙, 문화일보에 의견광고로 게재하려 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부산지역 일간지인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에는 이 광고가 정상적으로 실렸다.

### <연석회의 스케치>

## 재경 사무총장의 느닷없는 흥분 발언에 분위기 술렁

### “족보 만든다는데 무슨 말이 많은가”... ‘발언 사과’로 해프닝 연출 “동문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개탄

◆... 지난 7월 5일 연석회의에 참석한 동문들은 ‘젊은 동창회’를 표방하며 본격 출범한 ‘오거돈 체제’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며 오 회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분위기.

안강태 고문(11회), 이용흠 전임 회장(19회) 등은 회장단 인선과 관련, “노, 장, 청의 조화가 돋보인다” “우리 동창회가 앞으로 잘 될 것 같다”라며 낙관적으로 평가.

◆... 축사에 나선 장혁표 동문(8회, 전 부산대 총장)은 “나의 경우 가만히 있었는데도 동창회가 울타리가 되어 출세했다”며 “동창회의 발전은 곧 나의 발전”이라고 강조해 박수를 받았다.

이에 조규향 동문(14회, 동아대 총장)도 “가만히 있어도 울이 되는 선후배가 더 많이 나와야 한다”며 “30회 이후 기수뿐만 아니라 재학생 후배들 가운데도 울이 될 동문이 줄을 잇도록 재학생에게도 배전의 관심과 애정을 베풀자”고 주문.

◆... 덕담과 축원이 담긴 발언이 이어지면서 시종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지하게 진행되던 이날 회의는 임우근 재경동창회장을 대리해 참석한 고창우 재경사무총장(27회)의 앞뒤 재지 않는 흥분된 발언으로 한 때 소동.

오 회장은 경발위 관련 주요 쟁점 보고와 70년사 편찬, 고 이태석 동문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본부의 방침을 밝히고 재경동창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고창우 동문에게 발언권을 주었다.

그러자 마이크를 잡은 고 동문은 느닷없이 흥분한 목소리로 “재경동창회가 70년사 편찬 사업에 재경동창회와 사전에 논의나 협의를 거쳐 발의해야 하지 않느냐” “돈이 문제가 아니다” “경발위 기금으로 70년사 편찬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다” 등등을 격양된 톤으로 발언을 이어가자 장내 여기저기에서 “저 친구 태도가 뭐야, 왜 저래?”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며 술렁거리기 시작.

오 회장은 이에 고창우 동문이 뭔가 착오하고 있다고

판단, 이용흠 전임 회장과 황유명 사무국장에게 그동안 진행된 경과를 설명하도록 요청해 70년사 편찬 등에 대한 그동안의 진행과정, 본부동창회 이사회가 밝은 의결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그런데도 고 동문은 고문단 회의에서 70년사 편찬을 논의하고 승인한 것에 놓고 ‘고문단은 의결권이 없으므로’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고 이태석 동문 흉상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재경동창회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실까지 밝히자 장내 여기저기서 반문요청이 쇄도하면서 “용마 족보 만든다는데 무슨 말이 많은가” “족보가 급하냐? 발전기금이 급하냐?” “굳이 순서를 따진다면 70년사 편찬한 뒤에 기금 모금을 논의해야 맞지 않느냐” “사과하라” 등등의 성토성 발언이 터져 나오는 등 분위기가 자못 ‘살벌’해지기도. 그러자 고 동문은 뒤늦게 일어나 사과하는 등 해프닝을 연출.

토론을 생산적으로 진행하려고 자제하던 오 회장도 이윽고 “(재경동창회에) 오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고, 역사에 흠을 남기지 말도록 하라는 말도 함께 전하라”고 말하고 논의를 종결.

이날 소동을 지켜본 원로동문들은 “같은 발언을 해도 예의를 갖춰서 해야 한다” “선후배가 있는 동문사회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개탄하며 혀를 차기도. <이상룡 편집위원(24회)>

모교 발전기금 접수 현황

본부동창회 접수분 7억원 육박

박명진 (33회 · 고려개발(주) 대표이사) 2,500만원

김법영 (33회 · 김&정해운대병원 원장) 2,000만원

손부흥 (15회 · 손부흥정형외과의원 원장) 500만원

여환부 (21회 · 대주건설(주) 회장) 500만원

김상현 (26회 · 영동산업사 대표) 500만원

김호용 (26회 · 한국전기연구원 선임연구본부장) 200만원

노영현 (28회 · (주)하트라파코리아 대표이사) 200만원

30회 울산동기회 450만원

김해지역동창회 (회장 김영우, 19회) 300만원

<2011년 5월 10일 ~ 7월 6일 까지 본부동창회 접수 분 중에서>



박명진 (33회)



김법영 (33회)

입금  
계좌  
안내

- 소득공제 혜택이 필요한 경우

(부산은행) 029-01-030712-1 예금주 : (재)용마장학회 안강태

- 소득공제 혜택이 필요 없는 경우

(부산은행) 029-01-030713-0 예금주 : 경남중고발전위원회 이용흠

본부동창회 접수 분 - 누계 <2011년 7월 6일 현재>

Table listing donors and amounts for the 2011 July 6th cumulative total. Includes names like Huh Gyeon-jun, Kim Hee-cheol, Song Du-ho, etc.

Main table listing donors and amounts, continuing from the previous table. Includes names like Kim Bong-ho, Kim Seok-yun, Kim Yang-gon, etc.

- 합계 : 6억 9,712만원

### 못 말리는 '30회 독종 용마들' 삼공산악회

# “눈, 비 오고 폭풍 몰아쳐도 우리는 산에 간다”

## ‘또라이’ 소리까지 들으며 주말 산행 10년... “앞으로도 계속” 기업

30회 동문들의 등산모임인 '삼공산악회'가 '큰 일'을 해냈다. 동기들끼리 주말마다 부산 근교 산에 오르기를 무려 10년 동안이나 계속한 끝에 지난 4월 말 '500차 산행'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것이다. 삼공산악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주말 산행을 계속해 10년 뒤인 2021년에는 '1,000차 산행' 기록을 세우겠다"고 기업을 토하고 있다.

지난 10년 간 500차 산행을 했으니 한 해에 50회씩 산행을 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1년이 52주이니 매년 명절 등 한 두번만 빼고는 주말이면 빠짐없이 산행을 계속해 온 것이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고교동창회 산악회가 있지만 삼공산악회처럼 초지일관 즐기차게 주말등산을 계속해온 모임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한번 한다면 끝까지 하는' 용마들의 독한 기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다.

삼공산악회는 지난 2000년 10월 1일 부산 근교 승학산에서 가진 동기회 야유회 겸 합동등반 때 서하수 최거훈 우영진 김병기 박진수 김병섭 천성일 이원용 우홍제 등이 "매주 정기적으로 주말등산을 하자"고 발의함으로써 공식 출범했다. 초대 회장은 김병기, 총무는 정종범, 산행대장은 천성일 동문이 맡았다. 이때 이들은 "이왕에 시작하는 거 눈비가 오거나 폭풍이 몰아쳐도 매 주말 마다 빠짐없이 산에 가



지난 4월 500차 산행의 기념사진

자"고 약속했고 이 약속을 지금껏 지켜오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실제로 폭우가 쏟아지는 데도 불구하고 배낭을 꾸려 집을 나서 산행을 감행한다. 초기에 30회 동기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빛 속 등산'이 알려지자 "또라이들 아닌가"하는 동기들의 감탄 섞인 댓글이 줄을 잇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빛 속 등산이든 심지어는 야간



2권의 산행 후기 기념집

등산 소식이든 의례 그럴러니 한다고 한다.

삼공산악회는 30회 동기 전원에게 참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고 있으나 실제 산행에 동참하는 동기는 매 회 평균 10여명선. 회장단이 중심이 되고 매 주마다 참가자가 바뀌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동부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남자들끼리만 다닌다.

지난 2002년 12월에 1차~100차 산행기록을 담은, 2004년 12월에는 101차~200차 산행기록을 담은 '산행 후기 기념집'을 각각 냈다. 이 기념집에는 사진과 함께 산행 일자, 등반 대상지, 산행코스, 참가자, 산행일지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2년에 한번 꼴로 발간한 이 기념집은 그러나 두 번만 내고는 발간을 중단했다. '산행 후기' 작성을 서로 미루다가 빼먹는 경우가 자주 생겼고 발간비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삼공산악회가 지금까지의 500차 산행을 통해 올랐던 산은 부산 근교 산 등 약 100여개. 가장 자주 갔던 산은 장산(44회), 금정산(43회), 천성산(28회) 등이다. 일본 후쿠오카로 두어번 원정산행도 갔다 왔고 서울 동기들과 부산고 29회와의 합동산행도 여러 번 가졌다.

현재 회장은 11대로 김종진 동문(삼한정공 대표이사), 총무는 배경조, 산행대장은 정용하 동문이 맡고 있다. 매주 산행을 가진 뒤에는 대중목욕탕에 들려 몸을 씻고는 간단한 저녁 겸 술자리로 뒷풀이를 갖는다. 산행 뒤에 단골로 가는 목욕탕은 수영 팔도시장에 있는 대중목욕탕으로 매주 빠지지 않고 단체로 가니 목욕탕 주인이 단골손님이라며 목욕비를 2천원으로 깎아준다고 한다.

"언제까지 산행을 할 것인가"라고 물었더니 배경조 총무에게서 "죽을 때 까지, 부산에 사는 한"이라는 답이 즉각 돌아왔다. <황유명 편집위원(29회)>

### 論評

## 광주일고와 경남고

부산저축은행사건은 4조5천억원을 불법대출하고 2조5천억 가량을 회계비리(분식회계 후순위채권 발행)로 착복하는 등 7조원대의 피해를 입힌 사상 최대, 최악의 금융사기사건이다.

이 금융사기사건이 더욱 고약하고 충격적인 것은 사기행각을 벌인 주역들이 모두 광주일고 출신 선후배들이라는 점, 부산지역 서민들의 피 같은 돈을 긁어모아 호남지역 등에 부실 투자해 날려버렸다는 점 등 때문이다. '학연'과 '지연'이 배경이 된 이 사건을 일부에서는 '광주일고 출신 금융마피아의 부산서민 착취사건'이라고까지 부르고 있다.

이번 사건 초기 보도에서 언론들은 이 사건이 광주일고 출신들 끼리 짜고 저지른 '학연 범죄'라는 사건의 본질을 애써 외면하고 주범들이 광주일고 출신임을 감춰주기 위해 '특정 고교 출신'으로 흐려서 보도하는 비겁한 태도를 보였다. 급기야 매일경제 신문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지역 명문고 K고 인맥이 일으킨 것'이라고 보도하여 마치 주범들이 부산의 명문인 경남고 출신인 것으로 독자들을 오도하기 까지 했다. 이에 우리 재경동창회가 매일경제 신문에 엄중 항의를 했고 각 언론들도 늦게서야 범인들이 '광주일고 출신들'임을 밝혀 우리 모교와 동문들이 오해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광주일고 전체 동문들이다. 이번 사건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가까웠던 광주일고 출신의 소수 악질들'이 일으킨 사건이다. 광

주일고의 전체 동문들이 비난받을 일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일고 동문들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그런 불편했던 경험들이 없지 않다. 이번 부산저축은행사건과 비교하면 사소하달 수도 있겠으나 그동안 이런저런 비리나 부정을 저질러 실형을 받고 사회적 지탄을 받은 동문들이 소수이나마 없지 않았다. 그때마다 우리 동문들은 크게 실망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얼마 전 이 정권의 '실세'라며 잘 나가다가 이른바 '함바게이트'에 연루돼 브로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낙마한 모 동문의 경우에도 역시 그랬다. 당시 각 언론들이 그의 낙마를 전하면서 하나같이 '경남고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바람에 우리 동문들을 아주 남세스럽고 민망하게 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특히 관계, 정계 등 공직에 몸담고 있는 동문들에게 각별히 경각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한다.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면 당사자 개인의 신세를 망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결과적으로 모교와 동창회의 명성에 누를 끼치고 동문들까지도 도매금으로 망신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유념하고 스스로 엄중한 자세를 가져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참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 선거철 등 자신들이 필요할 때에는 동창회와 동문들을 급하게 찾다가도 일단 출세하거나 상황이 바뀌면 태도가 돌변하는 일부 동문들이 없지 않다. 그런 '속 보이는 행태'는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런 동문들은 말만 많을 뿐 실제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존재도 아니다. 지난 해 어떤 선거에 출마했던 모 동문이 스스로 모교발전기금으로 얼마를 내겠다고 본부동창회에 약정까지 해놓고도 선거가 끝나자 여태 입 싹 씻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 신의. 창의. 성실을 중시하는 기업 자연과 인간을 생각하는 기업

◎ APEC 정상회의장 공동시공사업입니다.  
◎ 2006년 건설기업 대상수상

※모교 발전 결연 기업입니다.

대표전화 : 051-504-6698  
팩 스 : 051-504-6809

주식회사 신태양건설  
회장 박상호 (26회)  
기술사 이상철 (41회)

제 179 호  
**감 사 목**

(주)신태양건설

귀사는 원소 건축사협회에 종신  
이해 받은지 4~2004년 APEC정상  
회의장 건설사업에 대한 업무  
성실성 수완으로 200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에 기여한 공로  
크으로 이에 감사함을 드리오니.

2006. 2. 28  
부산광역시 중구 남 석



■ 삶의 현장... 용마가 달린다① / 벤츠 판매하는 오용승 동문(46회)

# “벤츠 한 대 팔려면 보통 1, 2년 공들여야”

## 지난 3년간 200대 팔아... “용마인들은 고급 벤츠 선호해요”

오용승 동문(46회)은 ‘잘 나가고 있는’ 경력 10년의 자동차 세일즈맨이다. 부산지역의 벤츠 공식 딜러인 ‘스타 자동차 주식회사’에서 영업차장으로 일하고 있는 그는 서울에서 BMW를 팔다가 6년 전 부산으로 옮겨온 뒤 줄곧 벤츠 판매 일을 하고 있다.

‘스타 자동차 주식회사’의 40여명의 영업사원들 중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1, 2등을 달리고 있는 오 동문은 지난 3년 동안 약 200대의 벤츠를 판매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 중에서 우리 동문에게 판 것이 40여대에 이른다.

그는 “명문 경남고를 나온 덕을 좀 보고 있다”며 “우리 회사가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 동문들이 부산의 다른 고교 졸업생들에 비해 벤츠 선호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털어놓았다.

벤츠 영업사원들은 고객을 ‘충성고객’과 ‘미래고객’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충성고객’은 자신을 통해 이미 차를 구입한 고객들이고, ‘미래고객’은 앞으로 차 구입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이르는 말이다. 오 동문은 현재 약 200명의 ‘충성고객’을 갖고 있는데 이중 20여명이 우리 동문들이다. 20여명의 동문에게 40대가 넘는 벤츠를 팔았다고 하는 것은 벤츠를 구입한 동문이 가족용 등으로 보통 2, 3대씩 벤츠를 구입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 동문들은 대당 6, 7천만원 선인 저가 벤츠보다는 약 2억7천만원인 최고가 벤츠인 S600을 주로 찾는 경향이 있다”며 “그만큼 성공한 동문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스타 자동차 주식회사’에서는 벤츠 S600을 매년 평균 20대 정도를 파는데 S600을 구입하는 고객들 중 10% 이상이 우리 동문이라는 것이다.

오 동문은 “자동차 판매직은 자신이 노력한 만큼 벌여가는 직업”이라고 말했다. 고정 월급제가 아니라 매출액의 약 1%를 수당으로 받는 제도라는 것. 그가 매달 받는 수당은 판매실적에 따라 들쭉날쭉이나 평균 월 1천2백만원 전후. 그러나 실제 집에 가져가는 돈은 그 절반 정도라고 했다. 나머지는 영업에 재투자하고 있다. 매달 들어가는 자동차 연료비만 해도 평균 200만원에 육박한다. 거기다가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들에게 주는 각종 선물(골프백 등)에 드는 비용과 각종 우편물 발송비 등이 적지 않다. 이런 지출을 통털어 ‘고객 관리비’라고 하는데 일정 수준의 판매실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출을 아껴서는 안된다는 것. 오 동문이 관리하고 있는 ‘미래고객’은 현재 약 2천여명. 이들에게 자주 안부전화를 걸고 수시로 각종 선물을 보내는 한편 ‘충성고객’에게는 각종 에프트 서비스와 사고 상담, 보험 처리는 물론이고 생일이나 결혼기념일까지 챙기는 등 공을 들이는 게 그의 일이다. 그는 “고객에게 믿음과 감동을 주어야 하는 이 직업이 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오 동문은 “벤츠는 고가 브랜드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똑딱 팔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벤츠 한 대를 팔기 위해서 고객을 보통 1, 2년간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며 “한 명의 미래고객을 수년간 꾸준히 관리한 끝에 마침내 벤츠 한 대를 팔게 되면 그때 느끼는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



벤츠 전시장에 선 오용승 동문. 그는 고객에게 믿음과 감동을 판다.

했다. 그는 한 고객을 무려 5년간이나 관리한 끝에 제일 비싼 S600을 한 대 팔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느꼈던 뿌듯했던 그 기분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오 동문은 “자신과 가족의 안전과 품위를 생각하는 동문들에게는 벤츠를 권하고 싶다”며 “벤츠 구입을 원하는 동문들이 연락을 주면 특별히 성의껏 모시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와 두 살짜리 아들과 생후 3개월인 딸을 두고 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있기에 항상 아내에게 미안함을 갖고 있다. 그가 일하는 ‘스타 자동차 주식회사’는 유재진 동문(22회, 부산시 골프협회장)이 대표로 있다.

〈황유명 편집위원(29회)〉

### 동창회 일꾼들

#### 부산 사하지역동창회 ‘살림꾼’ 최승호 동문(36회)

##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명품’ 사무국장”

어느 동창회나 마찬가지로 사무국장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그 동창회의 분위기가 좌우되기 마련이다. 사무국장이 능력과 리더십이 있고 거기다가 회장과 호흡까지 맞으면 금상첨화다. 부산 사하지역동창회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최승호 동문(36회)이 이런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이다.



그는 평소 과묵하나 동창회 살림꾼으로서 일을 할 때는 강한 추진력과 치밀함으로 밀어 붙인다. 필요할 때는 상대가 누구든 분명한 어조로 설득하고 동문들의 대소사를 일일이 챙기는 인간미를 보인다. 이런 그를 두고 류명석 사하지역동창회장(31회)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명품 사무국장”이라고 칭찬하며 “최 국장이 우리 동창회 살림을 맡고 난 후 우리 사하지역동창회가 더욱 안정적이고 세련되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동문은 그동안 여러 동문들로부터 사무국장으로 추천받아왔으나 개인 사정으로 고사해 오다가 2010년 1월부터 사무국장을 맡아 일하고 있다. 동기인 김 막 동문이 대표번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정맥’에서 근무하며 동창회 일에도 열성적이다. 술을 한잔 마시고 노래방에 가면 가수 못지않은 실력을 보여준다.

법학을 전공, 법조계에서 23년간 일을 해오고 있다. 슬하에 1녀 1남이 있는데 딸은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아들은 고2로서 울산과학기술대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 ‘동창회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는’ 임정훈 동문(44회)

## “내 뒤 이을 후배 안보여 걱정이네요”

임정훈 동문(44회)은 동창회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된다. 경남고 학교운영위원, 경남고 야구부 후원회(용야회) 사무국장, 본부 동창회 이사, 44회 동기기 고문 등 그가 현재 맡고 있는 직책들만 봐도 그가 얼마나 동창회 일에 열심인지를 알 수 있다.



임 동문을 잘 모르는 동문이라도 본부동창회의 각종 행사장 입구나 고교야구가 열리는 야구장 본부석 쪽에서 멀대 같이 키가 큰 그가 이런저런 ‘도우미’ 역할을 하는 모습을 한번쯤은 봤을 것이다. 그는 본부 동창회의 이런저런 행사 때마다 ‘손과 발’이 돼 행사 진행을 도우고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낸다. 10여년을 한결같이 그렇게 동창회 일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임 동문의 모교 야구부에 대한 사랑은 극성스럽기조차 하다. 후배 야구부원의 건강, 개인사까지도 챙기고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도 조언자 역할을 톡톡히 한다. 이 때문에 야구부원들이 그를 좋아하고 따른다. 코치진도 이런 임 동문에게 고마워한다.

그는 “모교와 동창회가 좋아서 (동창회 일을) 무작정 시작했고,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라며 “내 뒤를 이어 본부동창회 일을 도울 50회 이후의 후배들이 아직 보이지 않아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부친이 경영하는 예식장 관련 일을 하다가 현재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 가족으로 부인과 1녀 1남을 두고 있다.

‘경남중고동창회보’는 동문들이 내는 구독료로 제작, 발송됩니다!  
2011년도 회보 구독료(년3만원) 납부 당부드립니다!

부산은행 028-01--32909-1 예금주 경남중고동창회  
(회보와 함께 보내드리는 지로용지로 납부해도 됩니다)

### 동기회 소식

#### ◇ 15회 = 월례회

지난 6월 18일 '용마릿집'에서 6월 월례회를 가졌다. 부부 동반으로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 최병우 직전 회장에게 공로패가 수여되었으며 졸업 5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장 한해수 동문의 경과보고 및 행사 계획 발표가 있었다.

#### ◇ 19회 = 서울, 부산 회장단 회동

지난 5월 13일 부산동기회 사무실에서 재경회장단과 부산회장단이 만나 현안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서 양측은 모교발전기금 모금 노력 강화, 경부동기들의 주소록 수정 보완, 끼리끼리모임 교류 확대, 다음카페 활성화 방안 등에 의견을 모았다.

#### ◇ 17회 = 회동수원지에서 आय회



지난 6월 18일 부산 회동수원지 일원에서 आय회를 가졌

다. 41명의 동기가족들이 참가, 오문대 입구에서 회동수원지 호수를 끼고 도는 올레길을 한 시간 반 동안 산책한 뒤 '산동평집'에서 썩 사브사브, 닭백숙 등으로 오찬.

#### ◇ 26회 = 대동제



지난 6월 12일 속리산 법주사일원에서 대동제를 가졌다. 본부 동기회에서 59명, 재경 동기회에서 46명의 동기가족이 법주사 입구에서 만나 서로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속리산 박물관 및 법주사를 한 시간 여 동안 탐방했다. 인근 산채식당에서 푸진한 오찬을 하고 송림 잔디밭에서 경부대함 족구대회와 여흥을 가졌다.

#### ◇ 36회 = 정기총회

지난 6월 15일 부산 연산동 '소잡는날'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2010년도 결산보고 및 감사, 졸업 30주년 행사, 경발위 기금조성에 관한 토의가 있

었다. 2011년도 신입회장에 정홍원 동기가 추대됐다.

#### ◇ 27회 = 밀양문화기행



지난 5월 29일 경남 밀양 일원에서 문화기행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31명의 동기가족들이 참석, 삼랑진 양수발전소 및 예림서원, 민물고기 전시관 등을 견학하였으며 호박소에서 휴식을 겸한 삼림욕을 즐기고 해산.

#### ◇ 31회 = 어울림한마당



지난 5월 22일 금정산 일원에서 '31회 어울림 한마당' 행

<9면에 계속>

## 어디선 무엇을...

#### <11회>

△김중하 = 부산시 남구 용호1동 179-9 일신님2차A. 206동 1601호

#### <13회>

△김상치 = 5월 1일 장남 태형군 결혼, 서울 노보텔엠베서더강남 △김수일 = 부산시 서구 압남동 595 송도풍림아이원 103동 102호 △오광희 = 5월 24일 모친상, 대동병원 △최부웅 = 6월 18일 상배, 서울 삼성의료원

#### <14회>

△김춘경 = 6월 4일 차남 근우군 결혼, 대림오페라웨딩홀 △김창무 = 7월 10일 차남 윤석군 결혼, 합천 이화예식장 △김향 = 6월 5일 모친상, 강남세브란스병원 △남기우 = 6월 18일 삼남 결혼, 서울 노보텔엠베서더강남 △이근하 = 6월 19일 장녀 결혼, 동해 망상그랜드호텔 △이수남 = 6월 18일 차녀 결혼, 웨딩투파티하우스 △정현 = 6월 19일 차남 결혼, 서울 아펠가모 △조돈만 = 소설가, 전 울산문인협회 회장, 소설집 '빠꾸오라이' 출간 △허증 = 자유선진당 서울시 당위원 취임

#### <15회>

△강영훈 = 부산시 동래구 은천2동 1134-3 △김윤기 =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2가 100-60 망양로 205번 다길 11호 △심규동 = 6월 26일 장남 결혼, 서울 엘타워 △이기철 = 5월 28일 차남 결혼,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

#### <16회>

△이겸일 = 6월 11일 장남 결혼, 부산 크리스탈웨딩홀

#### <17회>

△고배식 = 6월 4일 장남 결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김광휘 = 6월 12일 차녀 결혼, 서울 삼성화재본사 △김시영 = 6월 15일 모친상, 인창요양병원 △김용구 = 5월 28일 모친상, 부산 대동병원 △김중성 = 6월 29일 모친상, 서울 아산병원 △박인사 = 6월 18일 장인상, 남천성당 △박홍식 = 부산시 해운대구 중1동 롯데캐슬마틴A. 106동 2201호 △안국정 = 전 SBS부회장, 채널A(동아일보 종편) 부회장 △임병화 = 임병화외과의원 개원, 경남 통영시 태평동 409-1 △전중문 = 5월 21일 장녀 결혼, 서울 서초동성당 △정왕주 = 5월 18일 장녀 결혼, 서울 더베일리하우스

#### <18회>

△김정국 = 5월 16일 모친상, 부산 부민병원 △배무삼 = (사)부산민속연보존회 이사장, 010-2552-6475 △송덕규 = 6월 8일 부친상, 좋은강안병원 △이상만 = 6월 25일 모친상, 경남 고성병원 △이용조 = 5월 5일 장모상, 동아대학병원 △이장수 = 6월 21일 장모상,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정수남 = 5월 28일 딸 결혼, SK허브웨딩홀 △정순고 = 6월 12일 모친상, 대전 을지병원 △차명준 = 7월 2일 차남 결혼, 서울 블리스웨딩컨벤션 △최상원 = 마니주(주) 부산지사장, 010-4186-0272

#### <20회>

△박승호 = 6월 12일 장남 결혼, 서울대 연구공원웨딩홀 △박천웅 = 5월 9일~15일 2011한국구상대제전에 작품 전시,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유영걸 =

6월 24일 모친상, 부산 중앙성당 △윤병규 = 6월 11일 차녀 결혼, 울산 펠리체컨벤션 △윤봉태 = 5월 29일 차녀 결혼, 서울컨벤션 △전유태 = 5월 29일 장인상, 동아대학병원 △정세현 = 6월 21일 모친상,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진창현 = 6월 8일 부친상, 메리놀병원 △최인영 = 5월 29일 장남 결혼, 호텔리츠칼튼서울

#### <21회>

△권용호 = 5월 21일 장녀 결혼, 인천항갑문야외예식장 △김문성 = 6월 25일 딸 결혼, 서울 블리스웨딩컨벤션 △박영호 = 6월 7일 부친상, 분당서울대학병원 △박인협 =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배종관 = 6월 4일 아들 결혼, 안산 루체웨딩홀 △송태형 = 6월 18일 부친상, 남천성당 △오무영 = 6월 1일 모친상, 현대중앙병원 △윤상철 = 6월 18일 장녀 결혼, 해운대센텀호텔 △윤종화 = 'KT캐피탈' 감사 취임 △이재홍 = 6월 29일 모친상, 좋은강안병원 △이준성 = 5월 17일 모친상, 서울 성모병원 △정연호 = 6월 26일 아들 결혼, 서울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 △최동완 = '제30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입선, 6/13-16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 △최태식 = 6월 4일 장녀 결혼, 서울 천주교방배동성당 △故강재권 = 6월 25일 아들 결혼, W웨딩홀 △故옥규련 = 5월 22일 장녀 결혼, 서울 엘타워

#### <22회>

△김문우 = 5월 15일 모친상, 동아대학병원

#### <23회>

△고병민 = 6월 4일 아들 결혼, 호텔리츠칼튼서울 △손근식 = 7월 9일 장녀 결혼, 호텔파라곤 △신동규 = 6월 18일 장남 결혼, 서울 GS타워 △이병찬 = 삼일회계법인 본부장에서 대표이사로 승진 △이호건 = 6월 11일 장녀 결혼, 서울 PJ호텔 △정

갑윤 = 한나라당 국회의원, 국회 예결위 원장으로 선출

#### <24회>

△박태식 = 5월 27일 아들 결혼, 호텔리츠칼튼서울 △이재욱 = 5월 28일 차남 결혼, 서울 엘타워 △정기춘 = 6월 18일 차녀 결혼, 아쿠아펠리스호텔 △정철화 = 5월 6일 모친상, 동아대학병원 △최동록 = 7월 16일 장녀 결혼, 서울 한신인터밸리 △최병석 = 6월 11일 장남 결혼, 씨사이드웨딩홀

#### <25회>

△김건우 = 5월 21일 장인상 △김동식 = 5월 14일 장녀 결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백승익 = 6월 5일 장남 결혼, 센텀임페리얼웨딩홀 △오양득 = 7월 9일 차녀 결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이승원 = 6월 11일 장남 결혼, 서울 역삼동성당 △이영기 = 5월 28일 장녀 결혼, 서울 수서동성당 △이찬형 = 6월 11일 장녀 결혼, 서울 웨딩의전당

#### <26회>

△곽동기 = 6월 4일 차남 결혼, 부산 호산나교회 △김도형 = 7월 16일 차녀 결혼, 연세대동문회관 △김섭권 = 부산시 연제구 연산2동 808-52 15동 1번 △김주병 = 6월 25일 장남 결혼, 신라호텔 △김태권 = 7월 2일 장녀 결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5월 9일 장인상, 좋은강안병원 △김홍식 = 5월 29일 장녀 결혼, 노보텔대구 △김희복 = 부산시 남구 용호2동 오륙도SK뷰 106동 1606호 △박봉두 = 6월 7일 장모상,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박승범 = 7월 9일 장녀 결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박원상 =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사직쌍용예가A. 111동 1602호 △배한수 = 6월 30일 장모상, 메리놀병원 △엄홍석 = 6월 28일 부친상,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윤수현 = 6월 8일 장모상, 광혜병원 △이성

<9면에 계속>



사를 가졌다.

이날 범어사 매표소 앞에서 모여 3시간여 동안 금정산 산행을 한 87명의 동기가족들은 점심식사 후 지회별 족구 시합(우승:서부지회)과 게임을 갖고 동기들이 협찬한 경품으로 행운권 추첨을 하는 등 오후 6시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전임 동부지회장 신수열 동기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 지역동창회 소식

#### ◇ 김해지역동창회 월례회 개최



김해지역동창회는 지난 6월 14일 '고성릿집'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월례회에서는 전월 회계보고 및 경발위 기금에 관한 안전, 동창회 카페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고 김용진 동문

(36회)의 마라톤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 ◇ 사하지역동창회, 거제도에서 단합대회



사하지역동창회는 지난 5월 15일 경남 거제도 일원에서 단합대회를 가졌다.

37명의 동기가족들은 거제도 대금산 산행을 한 뒤 멧계비빔밥과 해물뚝배기로 푸짐한 오찬을 즐겼으며 이어 '바람의 언덕'을 둘러본 후 부산으로 돌아왔다.

이 행사에는 오거돈 동창회장이 참석하여 격려금을 전달.

#### ◇ 울산지역동창회, 이사회 개최

울산지역동창회는 지난 5월 30일 프라우메디병원에서 이사회를 열고 2011년도 사업추진방향 및 예산안 심의, 자문위원 추대의 건 등을 논의했다.

이날 신임 사무국장으로 이승열(28회)동문이 임명됐다.

#### ◇ 재구동창회 문화탐방행사 가져



재구(在邱)동창회(회장 이균호,16회)는 지난 5월 21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춘계 문화탐방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에 참가한 16명의 동문들은 대구를 출발해 경상북도수목원, 영덕 풍력발전단지를 둘러보고 덕구온천에서 1박했고 둘째날에는 월송정, 불영사, 봉화 닭실마을, 부석사, 소수서원, 선비촌을 보고 대구로 돌아왔다.

이번 행사에서 조성호 동문(13회)이 길잡이역할을 했고 허판규 동문(20회), (주)삼성산업 회장이 숙식을 제공했다.

참석자는 조성호, 이창호(이상 13회), 김종한, 송석진, 이치영, 조규중(이상 15회), 노원소, 이계웅, 이균오, 채경일, 하호길, 허경희, 강상권 (이상 16회), 이용규(19회), 허규판(20회), 양준영 동문(26회).

#### 알림

동기회, 지역, 동호회 활동을 알려주시면 지면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연락 : 홍보 편집실 / 이메일 주소 : yongmanews@gmail.com

호 = 5월 7일 모친상,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 정재영 = 5월 17일 장모상, 서울성모병원 △ 최의수 = 'LIG화재보험' 대리점 개업, 010-2472-2225

**<27회>**  
△강성보 =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 경성대학교 초빙교수 △김성수 = 5월 6일 장인상, 좋은강안병원 △김영수 = 6월 11일 장남 결혼, 서울 한울컨벤션웨딩 △박규욱 = 7월 9일 장녀 결혼, 센텀임페리얼웨딩홀 △안병찬 = 전 한국은행 국제국장 현 KB투자증권 감사, 책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정책' 출간 △유 봉 = 7월 9일 장남 결혼, 서울 포스코센터빌딩 △이민부 = 한국고원대학교 교수, 7월 2일 KBS1TV '남북의 창' 출연 △이원철 = 7월 1일부로 상지대학교 한방병원장 취임 △이유근 = 6월 11일 장남 결혼, 서울 엘타워 △임기대 = 5월 27일 모친상, 좋은강안병원 △조태화 = 6월 12일 딸 결혼, 씨사이드웨딩홀 △황호경 = 6월 12일 아들 결혼, 오션드라마메르웨딩 △故조경제 = 6월 12일 아들 결혼, 대구 오월의정원

**<28회>**  
△김영출 = 7월 2일 장녀 결혼, 서울 여의도웨딩컨벤션 △박진국 = 6월 11일 장녀 결혼, 부산동신교회, 5월 7일 부친상, 서호병원 △배효진 = 6월 11일 장녀 결혼, 팔레드시즈웨딩하우스 △신영준 = 7월 9일 장녀 결혼, 성남 분당우리교회 △유영식 = 6월 6일 장인상, 삼성서울병원 △이명재 = 7월 9일 장남 결혼, 서울 아네스웨딩컨벤션 △이병호 = 기획재정부 대변인실 과장 △천병년 = 5월 14일 장인상, 동아대학병원

**<29회>**  
△김근덕 = 부산시 사상구 주례2동 동장 △김용채 = 6월 18일 장남 결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민동식 = 5월 6일 장모

상, 동아대학병원 △박정환 = 6월 20일 모친상, 부산의료원 △손용택 = 5월 25일 장모상, 청주시북면공원 △신영기 =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이준환 = 6월 30일 장모상, 부산성모병원 △최정만 = 5월 31일 부친상, 부산보훈병원

**<30회>**  
△구의본 = 메디우먼여성병원 소아과 개원, 부산 해운대역 2호선 7번 출구, (051)731-4800 △김백수 = 5월 18일 장인상, 창원 정다운요양병원 △김재철 = 부산MBC 본부장으로 임명 △류광상 = (주)이레테크 대표이사,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330-9, (051)418-8959 △박광호 = 5월 6일 장인상, 김해 성모요양병원 △박성중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무총장, 6월 12일 KBS1TV '한국, 한국인' 출연 △배성근 = 창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산학협력단장으로 임명 △서병관 = 울산 중앙청과시장 내 야채가게 '신선유통' 운영, 010-3561-8311 △오충조 = 두산건설 전략혁신본부 상무

**<31회>**  
△김문기 = 모비디종합물류(주) 대표 △김중호 = '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 동부지부 대구지방 제51대 총재 취임 △남기태 = 토암건설(주) 대표이사 △노성현 = 부산시 영도구 청학2동 주민센터 행정 담당 △박해성 = 6월 18일 모친상, 부산보훈병원 △신영한 = 2011 대구세계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경기기획부 △이용승 = 6월 24일 부친상, 인창요양병원 △천성엽 = 6월 10일 장모상, 울산 영락원

**<32회>**  
△이문영 = 6월 8일 모친상, 대전 목동선병원

**<33회>**  
△김진홍 = 5월 19일 장인상, 인창요양병원 △옥숙환 = '스카이공인중개사' 개업,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차량등록사업소 입구 010-7767-8856 △이해승 = 대한민국합동참모본부 의장 비서실장 △진병선 = 신태양상사(중고자동차 사무실) 개업, 부산시 사하구 신평2동 370-6, 010-3048-1189

**<34회>**  
△김성중 = 5월 29일 장인상, 영도구민장례식장 △노승환 = 7월 23일 딸 결혼, 서울 아모리스강남 △박만득 = (주)스타일웨딩홀(부산역앞 소재) 상무이사

**<36회>**  
△성병길 = (주)지피알 파렛트 제작, 010-2362-8002 △송진섭 = 6월 28일 부친상, 침례병원 △이성호 = 동래세무서로 이동 근무 △이승호 = (주)지피알 파렛트 제작, 010-6420-1553 △이 호 = 웅진코웨이 23본부 근무 △신승렬 = 굿모닝성모안과

**<37회>**  
△김민용 = 5월 27일 모친상, 부산대학병원 △배원일 = 5월 30일 부친상, 좋은강안병원 △허 찬 = 충남 아산경찰서장 취임

**<38회>**  
△김종진 = 5월 11일 부친상, 인창요양병원

**<39회>**  
△박종국 = 고기집 '한우고집' 개업, 부산 서면 밀리오레 정문 맞은편 공구상가 골목 안쪽 △서성복 = 5월 10일 부친상, 규림요양병원 △정성운 = 6월 26일 부친상,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40회>**  
△조경태 = 6월 16일 저서 "지역주의는 없다" 출판기념회 개최 △최민한 = 5월 9일 부친상, 부산보훈병원 △한수열 = '여행스토리(주) 모두투어 메트로시티 옹호점' 대표이사, 010-5521-8247

**<41회>**  
△이영철 = 학원 이전 개업,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62-17 휴B/D 3F 한국배우예술회원, 010-5239-4798 △조원호 = 5월 2일 모친상, 인창요양병원

**<42회>**  
△정홍준 = 국민일보 부산경남지사장으로 승진

**<44회>**  
△이 현 = 6월 13일 부친상, 부산의료원

**<48회>**  
△박재원 = 6월 26일 결혼, 부산 코모도호텔

**<52회>**  
△정경호 = 6월 11일 결혼, 터존부페웨딩홀

### 부음

- ▲김영철(13회) = 6월 8일 별세, 서울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 ▲신용웅(13회) = 6월 24일 별세, (주)원립 회장, 서울성모병원
- ▲김두백(17회) = 5월 14일 별세, 인창요양병원 장례식장
- ▲장연식(18회) = 하성물류(주) 이사, 6월 3일 별세,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 ▲이소돌(21회) = 6월 13일 별세, 부산의료원 장례식장
- ▲이홍석(21회) = 6월 16일 별세, 건강보험관리공단 일산병원
- ▲김광윤(22회) = 6월 19일 별세
- ▲최광재(23회) = 경남엔지니어링 대표, 5월 9일 별세, 온종합병원 장례식장
- ▲김광만(29회) = 6월 30일 별세,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 ▲전상철(30회) = 5월 22일 별세,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

25회 동기회, 졸업 40주년 홈커밍 행사



25회 동기들의 졸업 40주년 기념 홈커밍 행사가 지난 5월 14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있었다.

행사 첫날 오전 11시 부산역에 도착한 서울 동기생들은 부산의 동기들과 만나 버스로 경남중을 거쳐 경남고에 도착, 추억 어린 교정을 둘러보며 기념 촬영을 했다.

이어 영도 목장원으로 자리를 옮겨 오찬을 하며 동기들끼리 정겨운 시간을 가진 뒤 공식행사가 치러지는 해운대 그랜드호텔로 가서 여장을 풀었다.

이날 저녁 호텔 22층 스카이홀에서 부산,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200여명의 동기생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공식 행사에서는 본부의 박종찬, 재경의 이동호 회장의 인사를 시작으로 우애와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날에는 당구회, 기우회의 친선게임을 가졌고 산우회는 해운대 달맞이교개의 문텐로드를 걷기도 하였다.

이어 자갈치 해물뷔페 '오아제'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이번 행사를 마무리했다.

25회 동기회는 경남중과 경남고에 각각 500만원씩의 발전기금을 전달하였다.

35회 동기회, 졸업 30주년 홈커밍 성대 개최



35회 동기회는 졸업 3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2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홈커밍행사를 가졌다.

첫날 오후 2시 모교에 도착한 동기들은 오랜만에 찾은 교정을 둘러보며 단체 및 반별, 개별 사진 촬영을 한 뒤 교내 국산기념관에서 간단한 다과회를 갖고 옛 일들을 회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오후 6시부터 해운대 그랜드호텔 대연회실에서 은사인 박찬우 교장, 이희문 교감, 3학년 담임 교사들을 모신 가운데 180여명의 동기들은 기념식을 갖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정윤성 본부 동기회장과 정용경 재경동기회장은 이 행사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동기생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다음날에는 마음에 맞는 동기생들끼리 조를 짜서 관광을 즐겼다.

35회 동기회는 학교발전기금으로 써달라며 1,000만원을 경남고 김원용 교장에게 전달했다.

45회 동기회, 졸업 20주년 홈커밍 행사



45회 동기회의 졸업 20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6월 1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열렸다.

“우리는 도저히 ‘무효’로 돌릴 수도 없는 관계”

16회 재경동기회 사무실 폐쇄 결정, 再考 바란다

얼마 전 16회 재경동기회 이사회가 동기회 사무실을 사무실 임대차 계약 만기일인 내년 2월까지만 존속시키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어서 몇 자 적어 봅니다.

돈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무실의 유지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겠지요. 그러나 동기회의 총무를 여러 해 발로 뛰어 누구 못지않게 재경 동기회에 애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심정을 피력해 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동행(同行)

평소 소인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피부색을 막론하고, 같은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살고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동행(同行)하는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행’이란 길을 같이 감을 말합니다. 길이란 하늘이 삶을 갈라놓을 때까지 가는 인생길이요. 그 길을 같이 가자면 서로 불편한 일, 섭섭한 일, 미운 일, 고운 일 등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겠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동행한다는 것은 그러한 불편들을 넘어서 밀어주고 끌어주며 손에 손잡고 같이 감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봅니다.

같이 있기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괴롭다면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좋겠지요. 삼국지에서 읽은 글이긴 합니다마는, ‘부부관계는 의복(衣服)이나 혈연관계는 수족(手足)’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기 동창 관계는 어떤 관계에 속한다고 생각되십니까?

학창 시절, 1년 이상 같은 학교 울타리 안에서 공부를 하였다면 그것은 끊을래야 끊을 수도 없고, 도저히 무효로 할 수도 없는 관계이므로 제2의 혈연관계라고 해도 조

금도 과장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고향

1년에 한번을 못가도, 쓸쓸할 때나 외로울 때나 울적할 때나, 마음이 허전할 때, 사전에 약속을 하지 않아도, 미리 통지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가면 또는 먼저 가서 기다리면 그리운 악동(惡童)들을 볼 수 있는 장소. 어딘가에 동기회 사무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이 생기고 든든한 믿음을 주는 곳.

해외에 사는 친구들이 언제든지 고국에 가면 서울이고 부산이고 꼬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정말 행복한 것이야~

동기회 사무실이 없는 기수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며 어떻게 하면 그리 될 수 있느냐고 묘책을 알려줄 것을 간청했던 그 사무실을 없애려고 하다니 참으로 애똥하다.

어려운 젊은 시절 열정을 지닌 친구들이 깊은 애정을 가진 친구들이 어떻게 마련한 것인데... 크게 어렵지도 않은 지금에 와서 없애기로 결정하였다니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구나.

언젠가 친구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다가 거의 모두가 나가고剩이 남지 않아서 도저히 운영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는 때가 온다면 그 때 가서 문 닫아도 늦지 않을 터인데 마음의 고향을 미리 없애려 하다니 참으로 비통하구나!

지혜로운 친구들이여, 재고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노라!

2011년 6월 4일 公州에서 김태일

중국 산동 동창회

매달 둘째 주 목요일에 만나 우애 나눠 부인들은 ‘경고 마누라회’ 결성해 활동



산동성 거주 동문들은 매달 정기모임을 갖고 향수를 달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모임.

중국 산동성에 거주하고 있는 용마들이 지역동창회를 결성, 매달 둘째 주 목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만나 선후배 간의 우애를 나누고 있다.

지난 2004년에 결성된 이 모임에는 산동성에 거주하며 사업을 하고 있는 7회부터 46회까지의 동문 30여명이 등록돼 있으며 매달 모임에는 20명 정도가 참석하고

있다.

현재 회장은 김용덕 동문(28회)이, 총무는 신봉섭 동문(33회)이 맡고 있다.

총무 신 동문에 따르면 산동지역 거주 동문들의 부인들도 ‘경마회’(경고 마누라회)를 결성, 열성을 갖고 자주 모이고 있다고 한다.

재 산동성 지역동창회에 등록된 회원은 다음과 같다. △김홍기(17) △최학봉(22) △박준식(23) △변중석(24) △구자웅(24) △최원조(25) △김동철(25) △장 덕(26) △김영수(26) △신용도(27) △김병용(27) △김용덕(28) △이성욱(29) △조일래(30) △김영태(30) △박현철(32) △김용현(33회) △강정구(33) △신봉섭(33) △남해원(34) △이승호(36) △한만준(36) △박진우(38) △이창화(39) △김용민(40) △김명갑(41) △정윤호(41) △이상훈(46) △정창현(46)

<연락: 신봉섭 총무 e메일 bssshin04@hanmail.net>

첫날 오후 2시 모교를 방문, 기념 촬영을 한 뒤 해운대그랜드호텔로 이동, 대연회장서 200여명의 동기생들과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공식 행사를 가졌다.

3학년 담임 교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초청래 본부동기회장과 김용주 재경동기회장은 평소 동기회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한 동기생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이어 장기자랑, 축하공연, 기타 이벤트 행사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둘째날에는 재경 동기들 위주로 해운대 일대를 관광하는 시간을 가졌다.

45회 동기회는 경남고에 학교발전기금으로 500만원을 전달하고 앞으로 3년간 매월 30만원씩을 야구 후원금으로 전달할 계획임을 밝혔다.

인물 포커스

YS, 기록전시관 개관1주년기념식 참석

김영삼 전 대통령(3회)이 지난 6월 17일 경남 거제시 장목면 대계마을의 김영삼 전 대통령 기록전시관 앞마당에서 열린 개관 1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이곳은 나의 기록관이자 이 나라 민주주의의 기록관"이라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기원한다.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을 보는 게 나의 마지막 소망"이라고 말했다.

권영길 동문(15회), 19대 총선 불출마 선언

민주노동당 의원(경남 창원읍)인 권영길 동문(15회)이 지난 6월 28일 창원시청 프레젠테이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대 총선에서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는 "통합 진보신당 건설을 위해 몸을 던져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불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노기태 동문(20회), 부산항만공사 사장 연임

노기태 부산항만공사 사장(20회)의 연임이 확정됐다.



7월 16일자로 3년 임기가 만료된 노 사장은 이번 연임 결정으로 향후 1년 더 사장직을 맡게 되며 그 이후에는 1년 단위로 연임 여부가 정해지게 된다.

박오욱 동문(26회),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부총장에

박오욱 동문(26회)이 지난 6월 15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부총장으로 임명됐다.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스탠포드대학교에서 화학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 동문은 1985년부터 현재까지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교수로 재직해오고 있다.

권명보 동문(27회), 국제신문 사장 재선임

권명보 동문(27회)이 지난 6월 16일 열린 국제신문 주주총회에서 사장으로 재선 임됐다.



권 동문은 1980년 국제신문 기자로 입사, 논설위원과 광고국장, 편집국장, 상무이사 등을 거쳐 2008년 7월부터 사장으로 일해왔다.

김정관 동문(31회), 지경부 2차관으로 승진

김정관 동문(31회)이 지난 5월 17일 지식경제부 제2차관으로 승진했다.



김 동문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24회)로 공직에 들어가 옛 동력자원부를 거쳐 지경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에너지자원실장을 지낸 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그동안 에너지·자원외교의 실무 선봉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해온 그는 정확하고 섬세한 일 처리와 요란하지 않고 차분한 리더십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아왔다.

모교서 영어 가르친 에드워드 솔츠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영역, 출판

1966년 한국에 평화봉사단원으로 와서 모교에서 1년간 영어를 가르쳤던 에드워드 솔츠(66살, 미 하와이대 교수)가 <삼국사기>의 '고구려 본기'를 영어로 번역해 최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출판했다.

그는 모교에서 1년간 영어를 가르친 뒤 한국을 더 알고 싶어져 곧바로 미국 하와이대 대학원에서 한국사를 전공했으며 후 강(한국명 강희웅) 하와이대 명예교수와 지난 10년간 공동 작업한 끝에 '고구려 본기' 영역을 해냈다고 한다.

본부 덕형포럼 새 회장 정량부 동문(17회)

“포럼 오래 지속하도록 기초 튼튼히 닦는데 주력”

“우리 동창회가 ‘젊은 동창회’를 표방하고 있는데 나 같은 ‘지나간 군번’이 나서도 될까 해서 망설이기도 했습니다만...”

본부 덕형포럼의 제2대 좌장에 오른 정량부 동문(17회, 동의대학교 총장)은 스스로를 ‘지나간 군번’이라고 말했으나 정작 나이에 비해 훨씬 젊어 보이고 건강미가 넘친다.

그는 “중·고교 동문들이 포럼을 결성한 것은 우리 동창회가 처음이 아닌가 한다”며 “덕형포럼은 결성한 것 자체가 대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포럼의 운영과 관련, “본부덕형포럼이 출범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운영위원들을 중심으로 관심 있는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포럼이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기초를 튼튼히 닦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동문 사회의 주역들이 주로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내외의 이목을 간과할 수 없다면서 초빙 연사를 용마가족 범주에 매이지 말고 국내외의 저명한 사들에게 개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동광초등학교에서는 야구 선수로, 경고에서는 축구선수로 활약한 정 회장은 경남중고 6년간 합창반에서 활동한 전력을 갖고 있다.



지난해 5월 동의대 총장에 취임한 뒤 노래를 들으며 점심을 먹는 ‘런치 콘서트’를 개발, 교수와 직원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총장인 그 자신도 ‘레슨’을 받아가며 무대에 올라 교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정 회장은 덕형포럼은 물론이고 우리 동창회에도 음률이 흐르고 화음이 울려 퍼지기를 기대한다며 “기회가 있으면 오거돈 회장과 멋진 이중창을 선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룡 편집위원(24회)>

송규정 자문위원, 회장단 초청 오찬

송규정 본부동창회 자문위원(16회, (주)윈스틸 회장)이 지난 6월 26일 해운대 소재 한 음식점으로 오거돈 회장 등 본부동창회 회장단과 전임 임원 등을 초청, 오찬을 베풀었다.

송 동문은 전임 회장단의 노고를 위로하고 신입회장단을 격려하기 위해 당초 이날 골프모임을 준비했으나 우천으로 인해 대신 오찬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본부동창회의 현안 등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이를 지켜본 송 동문은 “우리 동문들이 대체로 이성적이고 너무 실리를 따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동창회에서 만큼은 감성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우애로 서로 감싸고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송규정(16회, 자문위원) △남진현(19회, 자문위원) △노



기태(20회, 자문위원) △오거돈(21회, 본부동창회장) △주우실(22회, 부회장, 등대회장) △김태용(23회, 부경대 부총장) △곽두희(24회, 부회장, 포럼운영위원장) △송정규(25회, 대외협력본부 부회장) △황유명(29회, 동창회 사무국장) △류명석(31회, 총무본부 부회장) △박명진(33회, 조지분과 부회장) <황유명 편집위원(29회)>

미얀마에서 온 편지

“울산 지역 동기 친구들이 그림다”

미얀마에 눌러앉은 이석우 동문(24회) “현재 미얀마에 거주하는 동문은 3명 뿐”

미얀마의 수도 양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석우 동문(24회, 탑골든 크라운 엔지니어링 대표)이 최근 본 회보 편집실에 e메일을 보내 자신의 근황을 알렸다.

이 동문은 이 e메일에서 “미얀마에 자리 잡은 지 1년이 넘었다”며 “울산에서 살 때는 용마가 모인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곤 했다. 벌써 그 시절이 그리워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국을 떠나 지내다 보니 무언가 허전하고 부족할 때 서로 찾아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허물없이 아옹다옹 지내왔던 울산 지역 동기 친구들이 더욱 더 보고 싶어진다”며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시간에도 동기들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린다”고 했다.

이 동문에 따르면 현재 미얀마에는 이 동문을 포함해 달랑 3명의 동문이 체류하고 있다고 한다. 그 중 한 명인 박종원 동문(37회, 미얀마 남부 지역에서 건축사업)과는 가끔 가족끼리 만나 식사도 하는 등 동문의 정을 나누곤 하나 미얀마 북쪽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다른 한 명의 동문은 아직 만나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 동문은 울산 현대중공업 프랜차이즈 부문과 제철

설비 분야와 해양 사업 부문 등에서 30여년 간 근무한 뒤 지난해 6월 미얀마에 정착했다. 정년을 몇 년 앞두고 정년 후에도 일하면서 나름대로의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찾던 중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 중에서 미얀마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아 보여 거기서 눌러 앉기로 결심하게 됐다는 것이다.



양곤의 어느 지역에서나 보인다는 ‘황금사원’ 앞에 선 이 동문.

그는 “미얀마가 나이든 사람들에게 맞는 기후조건을 갖고 있는데다가 노력하는 만큼 생활 할 수 있고 장래성도 보이는 매력을 가진 나라”라고 말했다.

이 동문은 “집사람이 한번 씩 미얀마에 들어올 때 모아서 가지고 오는 동창회보가 나에게서 무엇보다 반가운 선물”이라고 말했다.

<이 동문의 e메일 주소 : yisurkwoo01@gmail.com>

알림

고국을 떠나 멀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동문들이 자신의 근황이나 현지의 용마가족들의 소식 등을 사진과 함께 회보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이 지면을 통해 소개해드립니다. <회보 편집실 e메일 주소 : yongmanews@gmail.com>

# ‘비목’ 연주하며 눈물... 관객들 열광

## ‘아코디언의 거장’ 심성락 동문 위한 헌정공연 대성황 10회 동기들 “감동적인 무대였다” “자랑스럽다”

‘한국 아코디언의 거장’으로 칭송을 받는 심성락 동문(10회)을 위한 헌정공연이 지난 6월 26일 오후 5시 서울 잠실 올림픽홀에서 열렸다.

<전설의 아코디언연주자 심성락 선생에게 바치는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라는 타이틀로 열린 이 헌정공연은 사단법인 ‘한국음악발전소’ 대표인 가수 최백호씨가 기획했고 장사익, 최백호, 주현미, 적우, JK김동욱 등 다양한 장르의 국내 유명가수들이 이날 출연했다.

입장료가 4만4천원, 6만6천원, 8만8천원 등 세 종류로 비교적 높은 가격이었음에도 이날 올림픽홀의 2천4백석이 찼다.

막이 오르자 심 동문이 무대 중앙에 나와 ‘장미의 탱고’를 독주했고 이에 맞춰 아르헨티나에서 온 남녀 탱고 댄서가 춤을 추었다. 이어 JK김동욱, 최백호, 주현미, 장사익 등의 순서로 각각 세 곡씩 노래를 불렀는데 심 동문은 가수별로 한 곡씩만 아코디언으로 반주, 아코디언 연주의 진수를 보여주어 관객들을 열광시켰다.

마지막 순서로 심 동문이 무대에 다시 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훌륭한 후배 가수들과 연주자들이 나를 위해 이런 무대

를 마련해준 데 대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영화음악 ‘봄날은 간다’ 연주에 이어 당초 예정했던 ‘인어공주’ 대신에 ‘비목’을 연주했다. 심 동문이 ‘비목’을 연주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크게 잡혀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다. 애수(哀愁)를 띤 심 동문의 ‘비목’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은 열광적인 박수로 ‘앵콜’을 청했다.

이에 심 동문은 “오늘 이 자리에는 나의 친구들과 학교 선배들이 많이 와서 앉아 있다”고 말하고 “오늘 관객들이 대부분 나 이 드신 분들이니 ‘꿈에 본 내 고향’을 연주하겠다”며 연주를 시작했다. 이에 2천명이 넘는 관객들이 심 동문의 아코디언 연주에 맞춰 합창을 했다.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이날 객석에는 심재훈(9회), 김연수 고석명 김영덕 김해룡 이승준 정상수(이상 10회), 정수복(12회), 강부부 한해수(이상 15회), 김용찬(26회) 등 10여명의 동문들이 눈에 띄었



작곡가 김희갑씨(왼쪽 모자 쓴 사람)가 이날 헌정공연의 주인공인 심 동문(가운데)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오른쪽은 가수 최백호.

다. 부부동반이 많았고 한해수 동문은 이 공연을 보기 위해 일부러 부산에서 상경했다.

이날 공연을 본 10회 동기들은 “아주 감동적인 무대였다. 임섭(심 동문의 본명)이가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희 재경동창회 교문(9회)>

### 헌정공연 기획한 가수 최백호씨 인터뷰

## “심 선생님 안계시면 누구에게 아코디언 맡기나 걱정”

### “외국서 활동했다면 세계적인 연주자가 됐을 것”

### “함께 작업한 가수이름 나열하면 그 자체가 한국대중음악사가 돼”

#### 심 동문, “너무 기쁘고 행복... 나를 찾아내 소개해준 동창회보에 감사”



가수 최백호

국내 유명 가수들이 오직 한 사람, 심성락 동문을 위해 기꺼이 무대에 올랐다. 50여년 동안 아코디언 반주로 녹음실에서 또는 무대 뒤편에서 가수들을 빛나게 해준 그에게 이번에는 가수들이 나서서 보은(報恩)의 무대를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가수들을 위한 헌정공연은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연주인으로 헌정공연을 받은 이는 고(故) 이봉조씨와 심 동문뿐이다. 그러나 생존해 있는 연주인에게 헌정공연이 바쳐진 것은 심 동문의 경우가 처음으로 기록되게 됐다.

이번 헌정공연을 기획하고 출연까지 한 가수 최백호씨(‘한국음악발전소’ 대표)를 지난 7월 1일 전화로 인터뷰했다.

- 이번 헌정공연이 어땠나.

“대단한 성공이었다. 참가한 가수도, 객석도 모두 감동한 공연이었다”

- 이번 헌정공연을 앞장서서 기획했는데... (그는 이번 헌정공연 기획 과정에서 ‘한국음악발전소’의 관계자들이 적자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하자 “만약 적자가 나면 내가 적자분에 대해 모두 책임지겠다”며 밀어붙였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어른을 존경하는 풍토가 점차 없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음악계에서나마 어른을 모시는 풍조를 만들어야 한다

고 생각했다. 더구나 심 선생님은 우리 대중음악계에서 아주 소중한 분이이다.”

- 어떤 점에서 그런가.

“우리 대중음악계에서 아코디언 연주자는 희소하다. 아코디언은 연주하기에 어려운 악기다. 또 그걸로 밥 먹고 생활하기가 어렵다. 그런데도 심 선생님은 아코디언으로 꾸준하게, 끝까지 밀고 나가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전설이 됐다.”

- 그런 분이 왜 최근에야 대중에게 알려졌나.

“연주자는 음악에서 숨겨진 공헌자다. 가수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심 선생님은 평생 우리들을 위해 뒤편에 계셨기 때문이다. 얼마 전 ‘인어공주’ ‘봄날은 간다’ ‘효자동 이발사’ 같은 영화음악을 하면서부터, 또 처음으로 자신이 주인공이 된 앨범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를 내면서 비로소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 그러나 60년대에서 80년대에 우리 음악인들은 아코디언이라고 하면 심 선생님을 떠올렸다. 이미지에서 김건모에 이르기까지 심 선생님과 작업한 가수들의 이름을 나열하면 그 자체가 한국대중음악사가 된다.”

- 대중음악에서 아코디언 반주가 왜 중요한가.

“아코디언은 다양하게 쓰이는 악기는 물론 아니다. 그러나 뭐라 말할 수 없는, 애절하고 애수에 찬 독특한 음색을 내는 악기다. 이른바 ‘뽕짝’에 잘 들어맞는 악기다. 트로트에서 아코디언은 없으면 안 되는 악기다.”

- 그와는 작업을 많이 했는가.

“나는 그렇게 많이 한 편은 아니다. ‘남란에 대하여’ 등 다섯, 여섯 곡쯤 된다.”

-가수로서 보고 느낀 그의 아코디언 연주솜씨랄까 실력에 대해...

“심 선생님의 아코디언 연주는 아주 독특하다. 자신만의 독특한 리듬과 멜로디를 갖고 있고 만들어 낸다. 그런 리듬 감각, 멜로디 감각은 아무나 갖고 있는 게 아니다. 편곡자가 편곡을 하면서 어떤 부분은 아예 비워두고 그 부분을 심 선생님에게 맡기기도 할 만큼 실력이 대단한 분이이다.”

- 너무 과찬하는 게 아닌가.

“결코 그렇지 않다. 심 선생님이 한국에서 태어났기에 이 정도에서 그쳤다. 만약 일본이나 서양에서 태어나 활동했다면 세계적인 연주자가 됐을 것이다. 외국의 유명 아코디언 연주자들이 심 선생님의 연주를 듣고 깜짝 놀라는 정도다.”

- 고향이 부산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기회에 동향인 경남중고 동문들에게 한 마디 인사라도...

“심 선생님과 같은 분을 동문으로 가진 경남중고 동문들이 나오시는 부러울 정도다. 만약 심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아코디언 반주를 누구에게 맡기나 그것이 벌써 걱정이다. 심 선생님의 그 멜로디, 그 리듬을 대신 해줄 사람이 없다.”

한편 심 동문은 이번 헌정공연을 끝낸 뒤 동창회보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지금 나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좋은 무대를 마련해준 후배 가수들과 후배 연주인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숨어 지내다시피 했던 나를 어렵게 찾아내 동문들에게 소개해준 우리 동창회보에 고마운 마음 이루 다 말할 수 없다”며 “이번 헌정공연에 10회 동기 등 많은 동문들이 와 준 것에 감격했다”고 말했다.

모친의 기구한 삶 담은 <어머니의 노래> 펴낸 옥인영 동문(19회)

“어머니는 중국인... 철이 없어 부끄러워했다”

소년은 어려서부터 친구들을 집에 데려가지 않았다. 중학교 때도 그랬고 고등학교 때도 그랬다. 대지 2백평에 큰 마당이 딸린 집이었지만 동네친구든 학교친구든 누구도 집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어머니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랬던 그가 60중반의 늙그막에 이미 고인이 된 어머니의 기구하고도 모진 삶을 더듬어 ‘어머니의 노래’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다.

옥인영 동문(19회, 서울 성모병원·정형외과 교수)이 바로 그다. 그가 사무치는 마음으로 부른 사모곡(思母曲)이 동문들에게 진한 감동을 던져 주고 있다. 어린 얼굴인 그를 ‘옥 가시나’라는 별명으로 불렀던 동기들은 그에게 그런 말 못 할 가족사가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



중국인 복장을 한 이상운 여사의 생전의 모습

“책이 나온 뒤 동기들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다. 대부분 ‘감동받았다’, ‘너에게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몰랐다’, ‘단숨에 읽었다’ 등등의 반응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옥 동문의 어머니 고(故) 이상운(李祥雲)여사는 1917년 중국 산둥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수재(秀才) 소리를 들으며 산둥의학원을 졸업하고 산부인과 의사가 된다. 내과 의사인 남편을 만나 결혼, 함께 베이징에서 병원을 개원했으나 1945년 일본의 패망 소식을 듣는다. 온 국민이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던 날, 그녀는 기쁨을 맘껏 누릴 수 없었다. 일본인 남편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이 일본사람이 아니라 한국인이라고 고백하고 고향에 다녀오고 싶으며 동행을 제안한다. 길어야 서너 달이라고 생각하고 임신한 몸으로 남편을 따라 한국에 왔으나 6·25전쟁으로 중국이 적성국이 되면서 조국인 중국은 ‘갈 수 없는 땅’이 되고 만다.

군산을 거쳐 부산에 자리 잡은 남편은 ‘옥내과’라는 간판으로 병원을 열었다. 그러나 그녀는 당국이 중국 의사면허증을 인정해주지 않아 남편을 보조하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피붙이 하나 없는 낯선 곳에서 그녀는 2남1녀를 낳아 길렀다. 어느 날 어린 큰 아들(옥 동문)이 집에 뛰어 들어와 ‘엄마, ‘짱짜라’가 뭐예요?’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속으로 울었다. 그 일이 있고부터 그녀는 애들이 놀림을 당할까 봐 애들의 학교에는 단 한번도 가지 않았다. 아들 역시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는 법이 없었다. 남편은 그녀가 집에서 중국어를 사용하는 걸 싫어했다. 그녀는 집에서 숨어 지내다 시피 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한국에 와서야 남편이 12살 때 이미 평양 근교의 고향에서 부모의 강권에 의해 결혼, 남매를 두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전란 중에 집으로 볼썽 찾아온 전처의 아들은 그녀보다 두 살이나 위였고 딸은 그녀와 동갑이었다. 그 뿐이 아니었다. 남편은 일본 유학 시절 일본 귀족의 딸과 결혼해 거기서 또 아들 하나를 둔 사실까지도 알게 됐다. 이런 일들을 숨긴 채 자신과 결혼한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그녀는 몸을 떨며 절망했다. 그러나 그녀는 모든 걸 이해하고 화교(華僑)교회에서 모국어를 하는 중국인들을 만나며 독실한 신앙생활로 겨우 자신을 지탱해나갔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끝이 아니었다. 군산에서 첫 애를 낳았을 때 보모로 들인 여인이 그 후에도 계속 한집에서 살았는데 그 보모와 남편 사이에 또 애가 생긴 것이다. 산통으로 사경을 헤매는 보모에게서 그녀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애를 받아내야만 했다. 여동생처럼 의지해왔던 그 보모가 이제는 ‘베갯동서’가 되고만 현실 앞에서 그녀는 한없이 절망했지만 그 보모가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에는 어느 듯 체념을 넘어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신을 발견해야 했다.

마치 영화나 대하소설 같은 한 이국여성의 기구하고도 파란만장했던 삶을 그린 ‘어머니의 노래’는 용서와 화해로 인고(忍苦)의 모진 세월을 견뎌내고 끝내 아내와 어머니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낸 한 여성의 승리의 기록이기도 하다.

“어머니는 2005년에 돌아가셨다. 그런데 이듬해 미국의 풋볼 선수 하인스 워드가 방한했는데 그가 ‘한국 어머니’를 당당하게 내세우는 걸 보고 내심 큰 충격을 받았다. ‘나의 어머니는 중국인인데, 나는 그동안 어떻게 했나’ 하는 회한이 밀려왔다”

옥 동문은 이때부터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일대기를 책으로 펴내기로 결심했다.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들과 전도사였던 어머니가 생전에 중국어로 남긴 간증자료 등을 작가 이유진씨(전 한국예술신학대 교수)에게 건네주고 어머니의 삶을 되살려내 줄 것을 부탁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옥 동문은 단순히 어머니의 삶을 그려내는

어머니는 산부인과 의사... 내과의사인 아버지 만나 결혼  
북경서 개업... 해방되자 아버지 따라 한국에 왔으나...  
드러난 아버지의 이중결혼...忍苦의 세월 보내  
한 집에 두 여자... 기막힌 상황을 신앙의 힘으로 견뎌  
“어머니의 아픔 그 땐 어려서 몰랐다” 뒤늦게 참회

것뿐만 아니라 전도사인 어머니에게 기독교적 신앙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다고 한다. 특히 말년에 어머니가 고향을 자주 찾아 중국선교에 쏟았던 열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 그래서 일인칭으로 서술된 ‘어머니의 노래’에는 이상운 전도사의 신앙생



옥 동문의 부친과 모친이 중국 베이징에서 병원을 운영했을 때 간호사들과 함께 찍은 사진(왼쪽 앉은 이가 모친, 오른쪽 끝이 부친).

활과 신앙적 체험이 비교적 소상하게 소개돼 있다.

그러나 필자와 같은 평범한 독자에게는 옥 동문이 남다른 가정환경에서 자라며 어린 나이에 겪었을 갈등과 나이 들어 마침내 갖게 된 어머니에 대한 참회와 사무치는 마음이 행간에서 더 읽힌다. 어머니는 우리 모두의 공통분모 같은 존재이고 부모 앞에서는 어떤 자식이든 죄인이기에 그럴 것이다. 단숨에 ‘어머니의 노래’를 다 읽은 필자는 오래 동안 소식을 끊고 지낸 동기인 ‘옥 가시나’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옥 동문. 그는 “자식을 키우고 딸을 시집 보내보니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지를 알겠더라”고 말했다.

통화했다.

- 어머니가 중국인인 게 싫었다.  
“어린 마음에, 철이 없었기에 그랬다. 어머니가 한국어를 잘 못하셨다. 그래서 깊은 얘기를 못했고 그게 너무 후회된다.”

- 어머니를 언제 이해하게 됐나.

“대학에 가서다. 의대에서 화교출신 친구를 알게 됐는데 그 친구를 집에 데리고 가 어머니에게 소개했다. 내가 난생 처음으로 친구를 우리 집에 데리고 간 것이다. 그 때 어머니가 기뻐하시던 모습이 생각난다.”

- 어머니가 평생 고향을 그리워하셨을 텐데.

“내가 자식을 키우고 딸을 시집 보내보니 비로소 알겠더라. 시집간 딸이 매일 제엄마한테 전화를 하더라. 그런 딸을 보며 우리 모친은 얼마나 고향 땅, 집이 눈에 아른거렸을까를 새삼 알게 됐다. 돌이켜 보면

어머니에게 철따구니 없이 굴었던 게 하나하나 마음에 걸리고 후회된다. 그래서 책을 낸 거다.”

- 책을 내면 자연히 아버지와 관련된 가족사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 점에서 부담이 있었다. 작가는 있는 그대로 다 밝히자고 했다. 그 시대가 그랬지 않았느냐고, 책을 내고나서 아버지에게 대해 생각을 많이 했다.”

-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나.

“고등학교 때 아버지에게 긴 편지를 몇 번 썼다. 아버지는 그때마다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다’라고만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난봉꾼이 아니라 착한 분이였다. 어쩔 수 없는 현실 상황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이다. 괴로워하시는 아버지를 자주 목격했기에 아버지를 미워하지는 않았다.”

- 어머니는 여자로서 어떻게 그런 상황을 견뎌냈는지.

“내 기억으로 어머니는 워낙 강한 성격이었다. 아버지를 이해했던 것 같다.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지 아버지가 원래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 다 받아들이시는 분, 그게 어머니였다.”

- 중국어를 배우고 있다는데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

“대화에 지장이 없을 정도다. 그런데 어머니의 모국어로 어머니와 속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어머니는 곁에 안계신다. 그 사실이 가슴 아프다.”

옥 동문은 어머니의 뒤를 이어 틈틈이 중국선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년엔 정년퇴직하면 본격적으로 중국선교 사업에 뛰어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치웅(19회)>

恩師列傳 ⑥ / 윤충진 선생님

# 물리에 화학, 독어까지 가르친 ‘실력파’ 선생님



이재일(18회, 전 언론인)

윤충진 선생님은 좀 차가운 인상에 조용하신 분이였다. 그 흔한 별명 하나 없었다. 그만큼 조용하신 분이였고 어찌보면 학생들에게 인기도 별로였던 분이였다. 그러나 우리 동기 중에서 선생님과 관련한 아련한 추억거리를 간직하고 있는 친구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필자는 좀 다르다. 선생님은 2학년과 3학년, 두해 연속 나의 담임선생님이였다. 그런 특별한 인연으로 필자는 선생님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세월이 이렇게 흘러감에도 남기고 싶은 이야기 끼리를 갖고 있다.

**엄격한 원칙주의자... 잘못하면 가차 없이 뺨 때려**

윤충진 선생님 하면 먼저 떠오른 것이 수업과목이다. 담당 과목은 물리인데도 이따금 화학과 독어까지 가르쳤다. 물리와 화학은 연관이 없지 않은 과목이니 이해가 되나 독어수업까지 맡았던 것은 지금 생각해도 다소 의외다. 당시 독어 선생님이 안계셨거나 모자랐기에 그랬을 것으로 짐작하나 하여튼 당시 선생님이 독어수업까지 맡는 걸 보고는 우리는 "와, 실력이 대단하구나" 하고 수군거리곤 했다.

선생님은 칠판글씨가 너무 좋았다. 분필도 흰색 외에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어가며 썼는데, 필체가 어찌나 좋았던지 마치 인쇄한 듯했다. 깔끔한 글씨는 선생님의 성품을 그대로 말해 주는 것이였다. 원래 물리라는 과목이 어렵고 딱딱한 것이였지만 필자는 선생님의 물리수업을 좋아했다. 아마도 선생님의 멋진 칠판글씨 때문이였는지도 모른다.

선생님은 항상 근엄한 표정이었고 다소 신경질적이였다. 선생님은 원칙주의자로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원칙에 학생들이 어긋나면 용서가 없었다. 그 때 마다 가차 없이 뺨을 때렸다. 필자를 포함해 우리반의 몇몇은 아예 '선생님에게 뺨을 맡겨놓았다'고 할 정도로 자주 맞았다. '원 펀치'로 유명했던 코주부 김재정 선생님이 해비급 펀치였다면, 윤충진 선생님은 플라이급 수준이였지만 그래도 한 대 맞으면 제법 따끔했다.

**엄하고 무서웠으나 제자들의 미소에는 약해**

그 당시 필자는 어떻게 된 판인지 거의 매일이다시피 지각을 했다. 급우들이 나를 '지각대장'이라고 불렀을 정도였다. 그랬던 필자가 3학년 올라가서 부터는 지각을 단 한 번도 하

지 않았고 결국 졸업식에서 정근상까지 받았다. 여기에는 윤 선생님과 얽힌 사연이 있다. 2학년 2학기 때였다. 당시 우리반에서는 필자와 최을봉군이 단골지각생이였다. 지각을 할 때마다 담임인 윤선생님에게서 뺨을 맞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의 지각 라이벌인 최군은 지각을 하고도 뺨을 맞지 않고 무사통과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느 날, 최군에게 "넌 지각을 하고도 뺨을 맞지 않고 무사통과니 도대체 무슨 까닭이요?"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는 "야, 임마,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안 있나.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담임선생님한테 살짝 웃어 보거라. 그러면 무사통과될 까" 이라는 게 아닌가. 그 후 지각을 했을 때 선생님을 쳐다보며 웃는 낯을 해보았더니 선생님은 거짓말처럼 특유의 이복 사투리로 "빨랑 빨랑 다녀!"라며 자리에 들어가라고 손짓을 하는 게 아닌가. 그야말로 기막힌 비결이였다. 평소 얼굴에 미소가 거의 없었던 선생님이였지만 제자들의 미소에는 약했던 것이다.



3학년 여름방학 직전 송도에 해양훈련 갔을 때의 우리 반 단체사진. 앞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어깨에 수건 두른 분이 윤충진 선생님, 그 왼쪽이 이날 씨름대회 우승자 김춘현 군. 작은 사진은 윤 선생님의 47년 전 모습. 18회 졸업기념 앨범에 실려 있는 사진이다.

**뒷산에서 담배 피우는 학생 망원경으로 감시**

이런 일이 있고부터 필자는 선생님이 더욱 좋아졌다. 지각으로 담임선생님을 실망시켜드려서는 안되겠다는 가혹한 마음까지 우러나 3학년이 되면서부터 아침 등굣길을 서두르게 됐던 것이다. 등굣길의 나의 걸음은 거의 경보(競步) 선수 수준이였다. 부평동 1가 동사무소 부근의 우리 집에서 교문까지 23분 만에 주파하는 기록까지 세웠다. 지금이라면 한 시간 가까이 좋은 걸릴 거라. 그런 노력 끝에 졸업식 때 정근상을 받았으니 스스로도 대견하다는 생각이 든다. 환갑을 훌쩍 넘긴 지금도 걸음이 빠르고 약속시간을 반드시 지키는 습관이 몸에 밴 것은 오로지 선생님 덕분이라고 하겠다.

3학년 때 일이다. 담배피우는 친구들은 점심시간이 되면

뒷산에 올라가 숲속에서 한 대씩 태웠다. 당시 학생주임을 맡았던 윤 선생님과 호리호리한 몸매에 별명이 '개백따구' (선생님, 죄송합니다)였던 체육담당 정규혁 선생님은 점심 시간이면 원형교사 옥상에서 망원경으로 뒷산을 정찰하다가 저 멀리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을 보면 몰래 접근해서 현장을 덮치곤 했다. 이런 식으로 윤 선생님과 '개백따구' 정 선생님께서 불잡혀 징계처분을 받은 희생자(?)가 한 명이 아니었다. 정 선생님이야 체력이 좋아 그랬다고 쳐도 몸이 약해 보였던 윤 선생님까지 뒷산을 뛰어올라 흡연 단속을 한 것은 당시 학생주임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싶다. 동기생들 가운데 선생님이 웃는 모습을 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늘 근엄했고 농담을 할 줄 몰랐던 분이였다. 하지만 3학년 때 송도에 해양훈련 가서 벌어진 씨름대회에서 우리반(4반) 김춘현 군이 우승하자 그 친구의 등을 두드려주며 크게 소리내 웃으시던 선생님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제자사랑 속마음 알고부터 존경하고 좋아하게 돼**

선생님은 드러내 보여주진 않았지만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로 깊은 분이였다. 2학년 때 같은 반에 힘 좀 쓰면서 의협심도 강했던 한 친구가 말썽을 자주 부려 징계를 여러 번 당했다. 당시의 교칙은 징계정도에 따라 벌점을 매겨 누적점수 30점을 초과하면 퇴학시키도록 돼있었다. 그 친구는 이미 2학년 말에 30점을 받은 상태였다. 그러자 선생님은 3학년 4반 담임을 맡으면서 그 친구를 자기 반으로 일부러 뽑아서 데리고 갔다. 퇴학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다. 결국 그 친구는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 그리고 자신의 노력에 힘입어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다.

두해 거꾸 담임선생님으로 인연을 맺었기에 다른 동기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선생님의 속마음을 필자는 많이 알게 됐고 나도 모르게 선생님을 존경하고 좋아하게 됐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상하게도 선생님에게 뺨을 맞아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선생님의 매운 손길에서 제자사랑의 따뜻한 마음씨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미소가 적었지만 미소에 한없이 약했던 선생님, 겉으로는 엄하면서도 속으로는 인자함을 지녔던 선생님. 27년 전이던가. 졸업 20주년 홈카밍 행사 때 한 번 뵈고는 아직껏 인사를 드리지 못했다. 이 글을 쓰면서 부산에서 살고 계시는 선생님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조만간 찾아뵙고 큰절을 올릴 생각이다. 존경하는 선생님, 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고침** 지난 호 이면에 게재된 <은사열전>의 사진설명에 잘못 됐기에 바로 잡습니다. '사진 가운데가 故 이경진 은사이고 오른쪽이 김계곤 은사'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성공의 이유는 단순했다  
난 항상 그들보다 빨랐다

Master of Acceleration. The new E 63 AMG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부산스타자동차(주) 오용승이  
늘 고객과 함께하겠습니다



**AMG**  
Performance Center

차장 오용승  
H.P : 010.6500.6404  
E-mail : ninno64@gmail.com



Mercedes-Benz

\*경남고등학교 46회

# “교사이자 선배로 지냈던 꿈같았던 모교 시절”

그때 그 시절 이야기

이길상 (6회, 전 모교 교사)



내 스스로 돌이켜보아도, 나만큼 오래 모교의 언덕에 기대어 산 졸업생은 없을 법하다. 두 차례에 걸쳐 각각 6년씩 12년을 체육교사로 모교 교단에 섰고, 6년제 시절에 모교를 다녔으니까 도합 18년 동안을 모교 율타리 안에서 지낸 셈이 된다. 교단을 떠난 후에도 경남중고 야구부 일에는 손을 놓지 못하고 있으니 내 생의 절반을 모교와 함께 하지 않았나 싶다. 내 기억 속에서 모교를 지우면 과연 어떤 것들이 남아 있을지 모르겠다. 생각하면 그 시절이 꿈만 같다.

모교에 재직할 때도 나는 교사이기보다는 선배 입장에서 처신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통상적인 꾸지람보다 더 호되게 질책을 받은 후배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1968년의 일이다. 야구 대표단을 이끌고 일본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다. 보통 사람으로는 해외에 나갈 임무조차 낼 수 없었던 시절에 20일의 장기입장이었으니 여간 대단한 행운이 아닐 수 없었다. 모교가 그해 화랑대기대회에 우승함으로써 부산 지역 고교 선발팀을 이끌고 한국 고교대표 자격으로 일본 원정길에 오른 것이었다. 선수단은 경남고 8명, 부산고 4명, 경남상고와 부산상고 각각 2명씩 해서 선수 16명과 단장에는 모교 박경원 교장, 감독은 모교 어우홍 감독, 설외는 부산문화방송 정수택 이사, 그리고 총무는 내가 맡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원정 경기는 야마구치현 일원에서 벌어졌는데 8전 4승 2무 2패의 전적을 거두었다. 우리로서는 대표팀으로서 체면을 세웠으나 일본으로서로는 다소 충격적인 전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대회를 끝내고 야마구치현 하기시 관광에 나섰는데 사단은 하기시로 가던 버스 안에서 벌어졌다. 찾아가는 곳이 다름 아닌 이토 히로부미의 생가였고 하필이면 그날이 8월 15일이었다. 목적이 어디라는 것을 알게 된 우리 학생들이 슬렁거리기 시작했다. 잠시 뒤에 2학년생이던 허구연 군이 나서서 일본 측에

항의했다.

“왜 우리가 거기에 가야 하는가? 오늘은 우리 광복절이다. 이걸 정말 곤란하다.”

일본말을 모르는 나도 행선지가 이토 히로부미 생가라는 것을 그제야 알았으므로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허구연 군의 항변을 말릴 일도 아니었다. 우리를 안내했던 야마구치현 고교야구연맹 전무이던 모교 교감인 이도구 교장이 즉각 사과함으로써 사태는 일단락되고 방문 일정도 취소되었다. 그날 그 버스는 마침 요미우리신문 주재기자가 동승하고 있었다. 이튿날 요미우리신문 지역판에 한국 대표단의 이토 히로부미 생가 방문 취소 기사가 실렸다. 그 기사에는 “한국 학생들은 야구도 잘하지만, 특히 애국심과 국가관이 투철한 데 대해 큰 감명을 받았다”는

चेना간 기개의 소유자가 있기도 했다. 특히 영어 교사 김 아무개의 음주벽은 그의 별명 그대로 ‘영망’이었다. 한번은 술을 절제하라는 교장의 경고가 사표 요구로 와전되는 바람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김 아무개가 예의 작취미성으로 새벽부터 교장집에 무단 진입해 “사표 가져왔으니 받아라!”고 시위를 벌이자, 열이 받친 교장은 세수하고 난 뒷물로 응수하는 촌극이 벌어졌던 것이다. 급기야 자신의 사표 수리를 막무가내로 강권하는 김 선생의 주벽을 못 이긴 교장은 나한테 “김 선생이 오면 나 아직 출근 안 했다고 하라”며 부탁하고는 교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대피하는 일도 있었다.

명문고 일수록 개성이 유별난 교사들이 적지 않기 마련이다. 함께 모교에 재직하

고 가두 진출을 저지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시위에 나선 후배들은 교복 명찰 아래에 ‘똥구두여 전진하자!’는 리본을 달고 집짓 교문을 열고 진출하려는 듯이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그것은 경찰의 경계망을 교란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학생들은 갑자기 “가자”라는 외침과 함께 순식간에 수원지 쪽 들담으로 몰려갔다. 준비한 플래카드는 이미 담을 넘어 수원지에 들어가 있었다.

선두 그룹이 담을 넘어려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아빠사!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학생들이 넘나들지 못하도록 돌담 위에는 굵은 철조망이 설치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뒤따라오는 학생들에게 밀려 마구 넘어가려 했다가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다치게 될지 모를 위험한 순간이었다. 나도 모르게 고함인 터져 나왔다.

“야, 이놈들아 거기 섰거라! 철조망을 그대로 두고 어찌 넘어가려 하느냐, 이놈들아! 철조망을 먼저 치워야지! 얼른 가서 목수를 데려 오너라!”

내가 오라고 했다고 했으니 득달같이 목수가 달려왔고 이내 철조망은 제거되었다. 학생들은 교문 밖에 포진한 진압 경찰을 보기 좋게 따돌리고 수원지를 가로질러 가두로 진출했다. 많은 학생들이 옛 부산시청까지 진출해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벌였다.

그날 내가 왜 그랬는지 조리 있게 설명하지 못한다. 교사라면 응당 시위를 하지 말도록 학생들을 설득이라도 해야 했을 텐데, “목수 데려와서 철조망부터 끊어라”고 시켰으니 징계에 회부되더라도 꿈쩍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때는 수원지로 넘어가면 정확 처분을 하던 시절이었으니 더욱 변명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지금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 철조망에 걸려 피를 흘리는 후배들의 처참한 형상만 헛것처럼 어른거릴 따름이다.

그날 후배들의 데모를 저지하려고 했던 사람은 교장을 비롯해 겨우 교사 몇 명뿐이었다.

## 모교 재직 때는 교사이기보다는 선배 입장에서 처신 일본 원정간 야구부 허구연 군, 히로부미의 생가방문에 항의 당시 박경원 교장 별명은 ‘벌렁코’... 교무실엔 개성 강한 교사들 수두룩 ‘똥구두여 전진하자!’ 리본 달고 학생들 부정선거 규탄 가두시위 수원지 담 넘는 후배들 다칠까봐 목수 불러 후문 철조망 제거

일본야구연맹 전무의 코멘트가 보였다. 또한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못살지만, 20년 뒤에 우리는 반드시 일본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허구연 군의 당찬 포부와 결의도 기사화된 걸로 기억한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코끝이 시큰해지는 일이다.

당시 박경원 교장은 교사들 사이에 ‘벌렁코’로 통했다. 감정이 섞인 발언을 할라치면 코가 먼저 벌렁거렸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웃고 넘기지만, 매사에 정결한 성미인 교장이 건재하고, 나름대로 자부심이 만만찮았던 교사들이 포진했던 교무실에서는 ‘벌렁코’가 곧잘 연출되기도 했다. 교장이 교무회의에서 쓴소리를 늘어놓는다고 “맑은 정신으로 교단에 서려 했는데 골머리가 흥흥해서 오늘 수업 못하겠다”고 뒤

사들은 다들 출중한 분들이었다. 그런데 7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런 이들이 한두 해 사이에 대거 모교를 떠난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K학원 등으로 적을 옮긴 것이었다. 모교로서는 상당한 손실임이 분명했다.

내가 후배 제자들에게 무엇을 해 주었다고 꼭 집어서 드러내 보일 것으로는 변변찮지만 1967년 봄에 있었던 일이 기억난다. 그해 6월에 제7대 총선거가 있었다. 결과는 공화당의 압승이었지만 정국은 이내 부정선거 회오리로 홍역을 치렀다. 대학가는 물론이고 고등학교까지 그 회오리에 말려들었다. 모교도 예외가 아니었다. 학생들이 기어코 시위에 돌입하고 교문 밖 가두 진출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교문 바깥에는 이미 진압 경찰들이 바리케이트를 설치하

여러분이 내시는 구독료로 동창회보가 제작, 발송됩니다

2011년도 회보 구독료(년 3만원) 납부 당부드립니다!

-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계좌 -

부산은행 028-01-032909-1 경남중고동창회

\* 회보와 함께 보내드리는 지로용지로 납부해도 됩니다.

## 〈황강에서 북악까지〉 쓴 천금성 동문(14회) 인터뷰

# “전두환 일대기 쓰고는 내 인생이 꼬였다”

천금성 동문(14회)은 할 말이 많은 듯 속사포로 말을 이어 갔다. 그동안 지내온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그는 자주 한숨을 쉬었고 무엇에 북받치는 듯 ‘죽고 싶다’는 말까지 내뱉기도 했다. 70살이 넘은 노작가에게서 ‘자살’ 운운하는 말을 듣고 있기가 거부했다. 다방에서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소주잔을 놓고 다시 마주 앉았다.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의 일대기 〈황강에서 북악까지〉를 쓰고는 한마디로 혼이 났던 셈이네요.

“혼 난 정도가 아니지. 그걸 쓰고부터 내 인생이 뒤죽박죽, 말 그대로 엉망이 되고 말았지.”

그는 “그 일로 인해 글 쓸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했다. 문단에서 그를 ‘어용작가’라면서 철저히 ‘왕따’ 시켰다는 것이다. 오래 전 일인데도 문단의 외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내가 당시 허문도에게 철저히 이용만 당했던 걸 알게 됐지. 내가 세상 불평을 워낙 물렸고 어리석었어. 역사의식도 없었지. 그러나 지금 와서 후회할 들 뭐하겠나”

천 동문은 원앙어선 선장으로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뒤 인도양과 남태평양 등지에서 잡치를 잡으며 바다를 소재로 하는 소설을 잇달아 발표, ‘우리나라 해양문학을 개척했다’는 찬사를 한 몸에 받았던, 한 때는 ‘아주 잘 나간 작가’였다.

1980년 8월, 12년간의 원앙어선 선장 일을 끝내고 잠시 배에서 내려서 경향신문에 ‘표류도’라는 제목의 소설 연재를 막 끝냈을 때였다. 동아일보에서 연락이 왔다. 조오련 선수가 대마도까지 해엄을 쳐 건너는 쾌거를 이뤄냈으며 그것과 관련해 칼럼을 써달라는 원고청탁이었다. 그로서는 마다할 일이 아니었다. ‘지느러미도 갖지 않은 인간이 그 무서운 해류가 흐르는 대한해협을 헤엄쳐 건너다니...’ 운운으로 조 선수의 투지와 용기를 치켜 올리는 글을 써 보냈고 그게 8월 13일자 지면에 실렸다. 천 동문은 “그 칼럼이 나의 운명을 바꿔놓았다”고 말했다.

그 칼럼이 나간 바로 그 날 당시 중앙정보부부장서리 비서실장이었던 허문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허문도와는 서울대 농대에 재학 중 농대학보를 함께 만들면서 친하게 지냈던 사이. 그러나 대학 졸업 후에는 서로 연락이 통 없었다. 허문도는 “배 타고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서울에 있었구먼. 칼럼을 잘 읽었다. 당장 만나자”고 했다. 그날 남산의 중앙정보부에서 만난 허문도는 거두절미하고 A4용지 크기의 인사기록카드 한 장을 보여주며 “누군지 아느냐”고 물었다. 거기에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고개를 끄덕였더니 허문도가 “곧 대통령이 될 분이다. 지금 나라가 복잡하게 돌아가는 데, 우리가 다 한다면(개혁을 주도한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이 분 일대기를 써봐라”고 했다. 천 동문이 “전기 같은 건 써보질 않아서...”라며 망설이자 허문도는 “그게 뭐 어렵냐. 취재 좀 해서, 또 다른 전기들을 참고해서 쓰면 되지”라며 강권했다.

그는 허문도가 동아일보에 난 칼럼을 읽고는 자신에게 전두환 일대기를 쓰도록 하여 당시 실력자에게 ‘크게 한 건 해울릴 궁리’를 했음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황강에서...〉는 그렇게 남산 기슭에서 기획되었고 ‘또 하나의 작전’으로 전광석화처럼 진행되었다. 이 작전에서 천 동문은 자신은 ‘재주를 넘은 꿈’이었고 모든 생색과 공은 결국 허문도가 차지하고 말았다고 단언했다.

천 동문은 집필에 들어간 지 3개월 만인 10월 말 원고를 완성한다. 200자 원고지 1천4백장 분량이었다. 허문도에게

원고를 넘겼더니 끝 쪽에 정리된 ‘12·12’ 관련 내용을 보고는 “이런 걸 넣으면 안 돼”라며 신경질적으로 말하고는 50장 정도의 원고를 제 멋대로 빼내 버렸다. 책 제목도 허문도가 일방적으로 정했다. 당시 미국의 카터 대통령의 전기 〈땅콩밭에서 백악관까지〉가 출판됐는데 그 제목을 본 단 것이었다.

허문도는 완성된 원고를 전두환 대통령에게 건네 읽어보도록 했고 따로 신군부 핵심세력들에게도 회람시켰다. 나중에 허문도에게서 “각하가 원고를 읽어보시고 크게 만족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천 동문은 ‘청와대에서 사례를 두둑히 하리라’고 내심 기대했으나 두어 달이 지나도록 아무 기별이 없었다. 이때까지 그가 허문도에게서 받은 돈은 착수금 50만원, 그 후 중간에 50만원, 또 달고하고 나서 받은 100만 원 등 달랑 2백만원이 전부였다.

불만이 쌓여가던 중 그해 10월 말경 허문도에게서 마침내 연락이 왔다. 영부인께서 보자고 하니 급히 청와대로 들어오라는 것이었다. 이제야 뭔가 인사를 제대로 받겠구나 싶어 기대가 컸다. 이순자 여사는 그를 반기며 “내가 전씨 가문에 시집은 지가 21년이나 되어 알 만큼 다 알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책에는 내가 모르는 내용들이 많아 놀랐다”며 “작가님이 수고를 아주 많이 하셨는데, 이를 어떻게 보답해야 하나”라며 자리 옆에 붙은 높이가 낮은 서랍 쪽으로 손을 뻗치는 시늉을 했다. 이 때 저쪽 발치쯤에 떨어져 있던 허문도가 “영부인님, 그건 우리 비서관들이 알아서 다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그 말에 이순자 여사는 “그래요? 그러면 작가 선생님께

## 신문에 쓴 칼럼 보고 허문도가 전화... “이 분 일대기를 써봐라” ‘작전’처럼 진행된 집필 작업... “생색은 허문도가 다 냈다” 사례도 제대로 못받고 ‘어용작가’로 찍혀 문단에서 ‘왕따’ 생활고 속에서 재기 꿈꾸며 창작에 몰두... 소설집 20권이나 내

잘 해드려야 해요”라고 말하고는 “그런데 왜 12·12에 대한 내용은 없나요? 구국의 결단으로 일컬어지는 각하의 인생관이나 애국심을 알려면 그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해요”라고 말을 돌렸다. 이 여사는 “관련 군 지휘관들에게 취재에 잘 협조하라고 지시해놓을 테니 잘 정리하도록 하세요”라고 오금을 박았다.

“잔뜩 기대하고 들어갔다가 헛발만 켜고 말았네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허문도에게 따졌지. 몇 달이나 부러 먹고는 이게 뭐냐고. 선장인 내가 받는 월급이 5백만 원인데 지금까지 나에게 준 돈이 2백만 원 밖에 더 되냐? 영부인께서 뭔가 주려는 걸 왜 막고 나섰느냐고 큰 소리로 마구 퍼부어댔지”

“그랬더니 뭐라고 합디까.

“아니 그럼, 너는 영부인님 앞에서 돈 이야기할 작정이었나? 그리고 그 일을 돈 보고 했더니, 영광으로 알아야지 그러데.”

그리고는 허문도는 “책이 1백만 부쯤 팔릴 거니까 그러면 인세만 해도 1억 원은 좋을 거”라며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 책은 겨우 2~3만부 나가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것도 공무원 군인 등이 면피용으로 단체구입해 준 덕이었다. 계산해보니 그가 〈황강에서...〉로 손에 쥔 돈은 인세 등 모두 합해 1천만 원 남짓이었다.

배를 타지 못한 그는 수입이 없다시피 했다. 그는 곧 이순자 여사가 말한 대로 <12·12>에 대한 책을 쓰기 시작했다. 잘하면 그 책은 돈이 될 것 같았다. 이순자 여사의 지시가 있



부산 중앙동 거리에서 천금성 동문. 한 때의 실수로 ‘좌초’했던 그는 재기를 위한 항해를 계속하고 있다.

었기에 취재와 자료수집은 어렵지 않았다. 신군부세력 개개인과 면담을 통해 그 날 각자가 맡아 수행한 역할이나 작전내용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사태의 본질을 그림으로 엮어내는 작업이었다. 6개월여의 힘든 작업 끝에 실록 <10·26, 12·12, 광주사태>라는 제목의 책이 기인쇄본까지 나왔으나 “이런 내용의 책이 나가면 안 된다”는 허문도와 청와대 보안사 등의 강한 반대로 무산되고 만다.

그 때부터 그는 술만 마시면 허문도 등 5공 실세들을 마구 씹어댔다. 그 일로 치안본부 특수수사대(사직동팀)에 끌려가 사흘 밤낮을 혼졸이 나기도 했다. 나중에 그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당시 이수정 민정수석이 그를 문화방송에 부장급으로 취직을 시켜주어 겨우 밥벌이는 하게 됐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다.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MBC에 노조가 생겼고 어느

날 ‘낙하산으로 내려온 C모 물러가라’는 대자보가 대문짝만하게 나붙었다. 출근길에 그 대자보를 본 그는 그 길로 발길을 돌려 회사를 그만두고 만다.

생활고도 그를 괴롭혔지만 무엇보다 견디기 어려운 것은 문단 쪽의 계속되는 ‘왕따’였다. 원고청탁이 딱 끊겼고 소설을 기고해도 실어주는 데가 없었다. 광주사태를 일으킨 ‘살인마’의 일대기를 쓴 ‘어용작가’라는 딱지는 그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였던 것이다. 일정기간 배를 타지 않았기에 선장 면허까지 잃고 말았다. 그렇게 무려 13년이란 세월을 보내면서 만신창이가 된 그는 1994년 일개 하급 선원 신분으로 다시 태평양으로 달려가 잡치잡이 어선을 탄다. 오로지 소설을 다시 쓰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그 후 최근까지 천 동문은 오직 재기를 꿈꾸며 창작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동안 출판된 소설집만 20권이 아니 된다. 발표한 장·단편만 열추 100여 편에 달한다. 모두 바다를 배경으로 한 해양작품들이다. 그러나 그의 소설집은 출판은 되어도 잘 팔리지 않는다. 어느 신문이나 그 흔한 신간소개 기사조차 실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는 중앙동 40계단 부근에 집필실을 두고 꾸준히 창작에 매달려 있다. 언젠가는 자신의 소설들이 빛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란 희망 하나를 붙들고서. 이런 그를 두고 문화평론가 송재영씨는 그의 문학을 두고 “언젠가는 한국의 멜빌이요, 콘래드이며 생택쥐페리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의 소설들을 읽어보면 하나같이 특이한 소재에 구성도 탄탄하여 재미 또한 각별하다. <이상룡 편집위원(24회)>



/ 秃筆雜記 /

### 개도독놈보다 더 더럽고 치사한 놈들

# 직장인들은 하루 평균 두 세번 정도 화가 나서 '욕' 하는 순간을 느낀다고 한다. 최근 인터넷의 한 취업포털이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어디 직장인들만 그런가. 거의 매일같이 '욕' 하게 되는 일들과 마주치는 게 우리네 세상살이다.

# 며칠 전 아파트 주차장에 내려갔더니 누군가가 내 차 운전석 쪽으로 차를 바짝 붙여 주차해두었다. 겨우 차 문을 열고 몸을 모로 세워 운전석 쪽으로 비집고 들어가려고 시도했으나 도저히 불가능했다. '욕' 치미는 걸 겨우 참고는 도리없이 조수석을 통해 힘들게 차에 올라야 했다.

# '남에 대한 배려'는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기본적 매너다. 그런데 이런 기본을 아무러치도 않게 무시하는 막 패 먹은 자들이 주위에 널려있다. 예를 들어 대중목욕탕에서 흔히 겪는 일들이 그렇다. 옆 사람에게 물을 마구 튀기면서도 태연한 자, 열탕과 온탕을 구획하는 그 좁은 공간에 별명 천장을 향해 드러눕는 자 등등. 공중도덕과는 담 쌓은 이런 인간들을 볼 때마다 '욕' 하고 치밀지만 상대하기조차 싫어서 그만 고개를 돌리곤 한다.

# 그러나 최근의 '부산저축은행 사기사건'을 일으킨 날강도 같은 놈들은 못 본 척하기가 어려워 난감해진다. 명문고라는 광주일고 출신 선후배들끼리 짜고 불쌍한 서민들의 피 같은 돈을 무려 수 조원이나도 독질해먹다니... 로비에 놀아난 고위공직자들까지 한 통 속이 된 이런 막가파식 악질적 범죄행위에는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온다.

# 문학평론가며 타고난 낚시꾼인 전영태는 에세이집 <유혹과 물입의 기술, 낚시>에서 "도둑놈 중에서 제일 더러운 자가 낚시바늘에 마른 오징어미끼를 달아 개를 흠치는 개도둑놈"이라고 했다. 낚시바늘에 혀가 찢려 질질 끌려가는 개의 신음소리는 상상만 해도 몹서러워진다. 그러나 천생 낚시꾼인 전영태는 '신성한 낚시를 개사냥도 구로 삼은' 사실에 더 분노하며 "낚시꾼들의 피를 들끓게 하는 이 개도둑놈들아!"라고 욕을 퍼부었다. 이자 몇푼 더 얹어준다는 달콤한 미끼로 서민들을 꼬여서 온갖 수법으로 도둑질을 해먹은 부산저축은행 도둑놈들에게 나도 이렇게 호통치고 싶어진다. "야, 이 개도둑놈 보다 더 더럽고 치사한 놈들아!" <바우>

### 九德골 카메라 산책 - 야외학습장



### 멋과 낭만의 '숲속 교실' ... 활용 못한 채 방치

구덕산 자락의 6만여평의 부지에 펼쳐진 모교 교정을 찬찬히 둘러보면 절로 감탄이 나온다. 숲으로 둘러싸여 볼수록 아름답고 아늑한 교정이다.

교정의 제일 위쪽에 자리 잡은 석조건축물(국산기념관)을 오른쪽으로 보며 경사진 길을 조금 올라가면 '야외학습장'이 나타난다. 이곳이야말로 모교 교정에서 가장 멋있고 낭만적인 공간이 아닐까 한다. 하늘을 향해 쪽쪽 뿜은 삼나무 숲 속에 긴 나무의자들이 놓였고 나지막한 강단이 만들어져 있다. '숲속의 교실'이다.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가 새소리 들리는 이곳에 앉아 책이라도 읽거나 낮잠이라도 자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다.

7, 8년 전에 조성됐다는 이 시설은 그러나 실제로는 거의 수업에 활용되지 않고 있다. 딱딱한 수업일정에 쫓겨 교사나 학생이나 이곳까지 올라와 야외수업을 하거나 독서 또는 사색의 시간을 가질 만큼 한가하지 않다는 것이다. 점심시간에조차도 이곳까지 올라오는 학생이 드물다고 한다.

학교 선생이라는 직업이 외형에 비해 실리가 없다는 사실이야 널리 알려진 바이지만, 스스로 헤아려보아도 그려려니와 다른 이들의 평가에서도 결코 높은 점수를 받긴 애당초 그런 일자리임이 틀림없다. 도둑질, 비리질처럼 비천한 직업에 붙은 '~질'이라는 접미사가 이 직업에 따라 붙은 것을 보아도 이 접은 만고의 진리임이 분명하다. 컴퓨터에 '선생질', '훈장질'을 치면 빨간 밑줄이 따라붙지 않아 그것이 상용 표준어임을 알려주지만, 만약 '대통령질', '사장질', '국회의원질'을 치면 대뜸 빨간 줄이 감박거리며 "네 이놈, 불경스럽도다" 하듯이 경고를 발한다.

일본 근대문학의 아버지 격인 나쓰메 소오세끼(夏目漱石)의 자전적 소설<붓짱>은 도쿄 출신의 한 젊은이가 시코쿠(四國)의 궁벽한 시골 마쓰야마(松山)의 중학교 수학교사로 부임해서 겪는 정말 흥미진진하고 풍자로 가득 찬 모험담이다. 교육의 화신처럼 군림하는 위선자인 너구리 교장과 온갖 추잡한 짓을 자행하면서도 뻔뻔하게 하이칼라 행세를 하는 빨간 샤쓰 교감, 작당해 선생을 골탕 먹이는 학생놈들 틈에서 갖은 실수를 저지르면서도 마침내 그 악당들을 응징하고 악마의 소굴을 벗어난다는 즐거리다.

### 훈장질, 그리고 훈장의 톱

김성언의 人文산책

평생 선생질에 종사해야만 했던 소오세끼가 자기 직업에 대해 지녔던 역겨움과 언더리가 유머러스하게 표출된 명작이다. 유명한 온천 도시 마쓰야마에 관광 갔다 오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마쓰야마 사람들은 이 소설 하나로 먹고산다. 기념품마다 젊은 수확학생의 성난 얼굴이 재미나게 그려져 있고 그가 거닐었던 개천 독일과 전차역은 어디 가도 소설과 관련된 해설이 정겹게 붙어 있다.

우리나라 현대작가 서정인의 소설 <나주댁>도 단편이긴 하지만 그 못지않게 재미있는 소설이다. 특히 동종의 직업에 종사하는 나 같은 자로 하여금 슬며시 웃음을 머금게 하는 바가 있는데, 물론 그 웃음은 좋거나 즐거워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씩씩한 자학의 웃음이다. "에, 오늘은 학생 제군에게 딱 세 가지만 당부하고자 합니다"하고는 땀별 아래서 열 가지 윤리를 사자후로 포함으로써 학생

들을 졸도시키는 교장선생님의 훈화를 익히 알기에 그려하다. 한반도에서 훈장질은 예나 지금이나 남 보기에는 그럴듯하나 제 보기에는 옛 같은 그런 그럽고 그런 직업이다.

속담에 "훈장 톱은 개도 안 먹는다"는 말이 있다. 원래 선생질에 종사하는 자들의 살림살이가 하도 가난한지라 그런 말이 생겼겠지만, 내가 존경하는 유일한 교장이신 백아(白牙)선생께서는, 선생이 말 안 듣는 악동들을 훈육하느라 속이 썩을 대로 썩어 아무리 톱을 좋아하는 토종 개라도 그 내장에서 빠져나온 내용물을 멀리한다는 말이 라고 그럴듯하게 풀이하셨다. 요즘 교육일꾼 동기들끼리 만나는 술자리에선 으레 "학창시절 선생님 속께나 썩인 녀석들이 죄다 선생이 되었고나"하고 킁킁거리는 농담이 오가곤 하는데, 정말 면면을 보아하니 그 말이 맞는 말이 었다. 아아! 구덕 숲에서 자행했던 악동들의 온갖 짓궂은 행동과 일탈 때문에 한밤을 하얗게 새우셨을 모교 은사님들. 그 정다운 함자들을 가만히 불러보며, 다시는 오지 못할 그 시절을 회억해본다.

<김성언 (24회, 동아대 국문과 교수, 한국고전문학)>

# 용마 횃집

전망이 좋은 횃집

동문 여러분을 친절하고 저렴하게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표 오 용 환 (31회)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110-48 바다산책빌딩 2층  
미월드 놀이동산 앞 수변공원에 위치

예약문의 051)759-7337, 010-3574-5030



꽃 이야기 / 박꽃

# 수줍음 타는 담백한 얼굴의 시골처녀

요즘은 농촌에서도 박꽃 보기가 쉽지 않다. 돈이 되는 호박은 많이 심으나 박은 '돈 안된다'며 잘 심지 않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바가지가 나오기부터다.

반어반농의 갯마을인 우리 동네에서 해마다 박을 심는 이는 가 두리양식을 하는 홍대씨의 모친뿐이다.

"안 심을라카이 섭섭해서..."  
산책길에서 만난 홍대씨 모친의 말이다.

"바가지 만들라고요?"  
"바가지는 무슨 바가지. 그냥 나물이나 해먹을까 해서 심는 거지"

박으로 나물을? '도시촌놈'인 나로서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다.  
"박 속을 무우 채 썰듯 썰어서 나물을 만들어 먹으면 맛이 있제"

그러고는 덩뎡하게 한 마디 더 붙인다.  
"박꽃은 여자고, 호박은 남자제. 박은 밤이 돼야 피니 여자인거고, 호박은 아침에 피니 남자가 아닌가베"

비유가 좀 엉뚱하나 그럴듯하게도 들린다.  
박꽃을 촬영하려고 여러 번이나 발걸음을 해야 했다. 박꽃은 저녁나절 으스름이 깔리면 피기 시작하기에 활짝 핀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면 시간을 잘 맞춰야 한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 어쩌다보면 시간이 일러 꽃이 미처 활짝 피질 않았거나 어떤 때

는 이미 너무 어두워져 자연광 촬영이 여의치 않았던 것이다.

박꽃은 한자말로 포화(瓠花)라고 한다. 일년생으로 여름부터 가을까지 핀다. 특이하게도 해가 지면서 피기 시작하는데 특히 달빛 아래 하얗게 핀 박꽃은 가히 환상적이다.

으스름에 보는 박꽃은 푸른빛마저 돌 정도로 창백하다. 누구도 모를 슬픔을 혼자 간직한 소복(素服)입은 여인 같기도 하고 수줍음 타는 소박하고 담백한 얼굴을 한 시골처녀 같기도 하다.

박꽃이 필 즈이면 한낮에는 햇살이 뜨겁다. 그래서 낮에는 주로 집안에 박혀 있다가 저녁나절이면 슬리퍼 질질 끌면서 산책을 나가곤 했다. 그 길에 홍대씨 모친이 박 심어놓은 밭에 들려 무성한 잎파리 속에 숨어있는 박꽃을 살펴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올해도 지금쯤 홍대씨 모친의 박꽃이 피었을 것이다.

<김치웅(19회)>



어스름이 되어야 피는 박꽃은 푸른 빛이 돌 만큼 창백하고 슬픈 얼굴이다.



무성한 잎사귀 사이에서 박이 열렸다. 플라스틱 바가지가 나온 후부터 농촌에서는 박을 잘 심지 않는다.

## 너희가 술을 마실 줄 아느냐

# 술은 남편에 비유되고 술잔은 부인에 해당되므로 술잔은 남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장부(丈夫)의 자리에서 한 번 정도 잔을 돌리는 것은 소중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뜻이 있으므로 비난할 수는 없다. 단지 그 일을 자주 한다는 것은 정(情)이 과(過)하여 음절(陰節)이 요동(搖動)하는 것이라 군자는 이를 삼가야 한다.

# 술을 마실 때에는 남의 빈 잔을 먼저 채우는 것이 인(仁)이다. 내가 먼저 잔을 받았을 경우 상대가 술병을 상에 놓기 전에 바로 잡아서 상대에게 따르는 것은 인을 행함이 민첩한 것으로 지극히 아름다운 것이다.

# 잔을 한 번에 비우는 것을 명(明)이라 하고 두 번에 비우는 것은 주(周), 세 번에 비우는 것은 진(進)이라 하며, 세 번 이후는 지(止)라 하고, 아홉 번이 지나도 잔을 비우지 못하면 술을 마신다고 하지 않는다.

# 술을 마시며 있어 먼저 갖추어야 할 네 가

지가 있다. 첫째,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술의 독을 이기기 어렵다. 둘째, 기분이 평정하지 않으면 술의 힘을 이길 수 없다. 셋째, 시끄러운 곳, 바람이 심하게 부는 곳, 좌석이 불안한 곳, 햇빛이 직접 닿는 곳, 변화가 많은 곳, 이런 곳에서는 많이 마실 수 없다. 넷째, 새벽에는 만물이 일어나는 때다. 이때 많이 마시면 잘 깨지 않는다.

# 천하에 인간이 하는 일이 많건만 술 마시는 일이 가장 어렵다. 그 다음은 여색을 접하는 일이고 그 다음은 벼를 사귀는 일이고 그 다음은 학문을 하는 일이다.

# 술을 권하지 않을 사람에게 술을 권하는 것은 술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술을 권할 사람에게 권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군자는 술을 권함에 있어 먼저 그 사람됨을 살피는 것이다.

# 술에 취해 평상심을 잃는 자는 신용이 없는 자이며, 우는 자는 인(仁)이 없는 자이며, 화내는 자는 의(義)롭지 않는 자이며, 소란

(騷亂)한 자는 예의가 없는 자이며, 따지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이다. 그런 까닭에 속인이 술을 마시면 그 성품이 드러나고, 도인이 술을 마시면 천하가 평화롭다. 속인은 술을 추하게 마시며, 군자는 그것을 아름답게 마신다.

# 술자리에서의 음악이란 안주와 같은 뜻

이 있고 술 따르는 여자는 그릇의 뜻이 있다. 어떤 사람과 술을 마시느냐 하는 것은 때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만 가장 좋은 술 자리는 아무런 뜻이 없이 한가롭게 술만을 즐길 때이다. <출처 = '물고기는 물과 싸우지 않고 주객은 술과 싸우지 않는다'(최승호 저)에서>

### 시상책

## 밥 먹는 일

장옥관

큰 수술 받은 아내하고 들어서 일요일 아침을 먹는다 모름지기 밥 먹는 일의 범상하지 않음이여, 지금 우리는 한차례 제사를 드리고 있다 생기 잃은 몸에 정성껏 공양을 드린다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온 맘을 다해 청포 갖춰 입은 방아깨비처럼 절을 올린다 서로의 몸에 절을 올린다

장옥관 시인 = 1955년 경북 선산 출생. 계명대 국문학과와 단국대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졸업. 1987년 <세계의 문화>으로 등단. 시집 『황금 연못』 『바퀴 소리를 듣는다』 『하늘 우물』 『달과 뽕과 짧은 이야기』 등. 김달진 문학상 수상.



대한민국 국기대로  
강촌훼미리타운  
창립 100주년 기념

# 자연과 전통이 가득한 강촌훼미리타운

대표 백창봉(41회)

SINCE 1971





강촌가든



샤브샤브

아름다운 자연과 추억이 함께하는  
인벤토 노천카페 생맥주 페스티벌!

-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노천카페!
- 입구의 통나무 다리와 폭포수!
- 화학조미료는 일체 사용 하지 않습니다.



노천카페



피레스토랑 -인벤토



아이디어를 위한 후원금

문의 051)293-4500  
www.kangchon.co.kr

다시 보는 부산 ③ / 부산역

# 활기 넘치는 역 광장... 사람구경하는 재미 쏠쏠

글/사진 김형운 (18회, 김형운편집회사 대표)

## 〈이별의 부산정거장〉과 〈대전 브루스〉

내게도 가슴 가득히 설렘을 안고 부산역을 떠나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밤새 달린 야간열차는 평택쯤에서 아침을 맞았다. 그리고도 종착역인 서울역까지 얼마나 더 지루한 시간을 달려야 했던가. 그 시절에는 이런 노래가 아직 유행하고 있었다.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정거장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의 기적이 운다  
한 많은 피난살이 설움도 많아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자집이여...

〈이별의 부산정거장〉, 사람의 애간장을 녹이는 이 구슬픈 노래는 한국전쟁 휴전 이듬해인 1954년 세상에 나온 뒤로 금방 국민가요가 되었다. 그리고 부산 사람들에게는 〈돌아와요 부산항에〉, 〈부산갈매기〉에 앞서 부산을 상징하는 노래로 일찍 자리 잡았다.

대전역 광장 한 켠에는 "잘 있거라 나는 간다"로 시작하는 〈대전 브루스〉가 큰 돌에 새겨져 있다. 나는 1999년 그것을 비석에 새겨 역 앞의 광장에 두기로 결정한 대전 시민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수많은 여행객들이 드나드는 도시의 관문에 노래 한 자락을 띄우며 떠나길 즐기는 그 여유가 멋져 보인다.

부산역 광장에는 '부산잔미'라는 것을 새긴 돌비석이 있다. "바다는 희망과 평화의 상징이요 생산과 번영의 텃밭이다."로 시작해서 부산을 아끼고 가꾸자는 말로 끝맺는 이 상징적인 문패는 반공과 민족중흥을 외치던 시대의 '국민 교육 현장'을 떠올리게 한다.

그렇다고 해서 부산역 광장이 답답한 공간이란 말은 아니다. 단연코 말하지만 부산역 광장은 우리나라 기차역 광장들 중에서 가장 활기차고 개성적인 곳이다.

## 부산역을 부산역답게 만드는 세 가지

부산역 앞에는 부산역을 부산역답게 만드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진 찍는 청년남녀들이고, 또 하나는 종교를 전파하는 전도자들이고, 나머지 하나는 분수대다.

사진 찍는 사람들이야 어딘들 없으리라는 부산역은 남달리 그 풍경이 두드러진다. 다른 도시들에 비해 관광객이 많기 때문인지 확실히 이곳에는 사진기를 든 사람이 많다. 사진기 앞에서 울거나 찡그린 사람들을 보았는가? 사진을 찍고 찍히는 사람들의 표정과 동작은 그 자체로서 보는 이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든다.

서울역 광장에도 종교를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부산역 광장만큼은 아니다. 부산역 광장 입구 쪽에는 일요일만 빼고 날이면 날마다 엠프를 실을 작은 화물차를 대놓고 찬송가를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전도자가 있다. 그리고 광장 가운데 서서 찬송가를 부르는 전도자도 쉽게 볼 수 있다. 역 청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트 위에서 전단을 나눠주는 전도자도 볼 수 있다. 천주교와 불교에서 나온 전도자들도 눈에 띈다. 그러나 예수교 전도자들 열성에는 못 미친다. 예수교 전도단은 때때로 악대의 공연과 춤판 같은 것도 보여준다. 일본에서 건너온 신종교인 천리교의 전도자들도 항구여일하게 이곳의 한 풍경을 이룬다. 가슴에 띠를 두르고 두세 사람이 한 조를 이루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나무 딱따기를 친다.

부산역 광장에는 숲이 있다. 바쁜 사람은 무심코 지나치겠지만 차 떠날 시간이 애매하게 남은 여행객에게는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서 사람 구경을 하는 재미를 누릴 수 있다. 분수대는 그 숲 건너편에 자리 잡고 있다. 물줄기가 20미터까지 올라가는 분수대는 부산역의 랜드마크로서 기능이 크다. 분수대 앞에서 만나고 분수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분수대 앞에 앉아 얘기를 나눈다. 여름에는 아예 물놀이를 나온 아이들이 물줄기를 사이에서 슬래집기를 하며 광장 안에 밝은 웃음소리를 퍼뜨린다.

고속 열차가 생긴 뒤로 비행기보다는 주로 기차를 이용하게 된 뒤로 나는 부산에 올 때마다 부산역이 가진 어떤 역동감에 말려들게 된다. 그것은 이 광장의 표정이 늘 활기차 있기 때문이다.

## 나는 아직도 무임승차의 꿈을 꾀다.

내가 부산에서 경부선 기차를 처음 탄 것은 1963년이었던 것이다. 그때는 기차가 부산진에서 출발했다. 역사도 작았고 광장도 좁았다. 서울역에 내리면 '부산 촌놈'이라는 생각으로 어깨가 저절로 움츠러들 법했다. 그러나 부산역이 원래부터 그렇게 웅색했던 것은 아니었다. 1953년 11월 27일 저녁에 부산 영주동 서쪽 산비탈에서 불이 났다. 불은 그 동네 피난민 판자촌을 삼키고 삼시간에 동쪽으로 번졌다. 지금의 부산 동구 지역의 절반을 초토화시킨 그 화재는 '부산 역전 대화재'라고 불린다. 그때 중구 중앙동에 자리 잡고 있었던 부산역 건물이 불타 사라졌다. 1910년에 완공된 부산역사는



예수교에서 나온 여성들이 찬송가 반주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다. 부산역 광장은 전국의 기차역 중에서 가장 활기가 넘치는 공간이다. 거기에는 각종 종교 단체의 포교 활동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부산역 광장의 분수대. 높이 20미터까지 물줄이 치솟는 이 분수대는 부산역의 랜드마크이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만나고 사진 찍고 대화한다.

붉은 벽돌로 지은 르네상스 양식 건물로 서울역사보다 더 호화롭다는 말을 들었다.

불탄 지 열여섯 해 만에 초량의 지금 자리에 부산역의 새 역사가 지어졌다. 그리고 그 뒤로 서른세 해 뒤에 오늘의 부산역이 같은 자리에 모습을 드러냈다. 고속 열차의 등장을 계기로 건물을 크게 넓히고 광장을 새로 단장하였다.

고등학교 때에는 역무원 몰래 공짜 기차를 탄 것을 자랑하는 친구들이 있었다. 주로 사상이나 구포에 집이 있는 녀석들이었다. 나는 그 스틸 넘치는 장면을 상상하며 무척 부러워했다. 그런데 중학교를 마친 뒤에 서울로 떠났던 친구가 어느 날 나타나서 공짜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온 무용담을 들려주었다. 나는 나도 언젠가 꼭 무임승차의 모험을 감행해보기로 결심했다.

요즘은 전국의 어느 역에서든 표를 검사하지 않는다. 타든 내리든 맘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둔다. 사람들이 착해진 것이 아니라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컴퓨터의 활약으로 무임승차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그러나 무임승차를 시도하기에는 너무 나이 들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도 표 없이 기차를 탄 내 모습을 상상해본다. 역무원의 추격을 받으며 신나게 부산역 광장을 질주하는 나! 부산은 그것을 포용해줄 것 같다.



## 편집실 메모

- ▶ 미안마에 정착한 이석우동문(24회)과 在 중국 산둥동창회가 본 편집실로 소식을 전해와 이번 호에 반영했습니다. 먼 이국에서까지 동창회보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지면제작으로 보답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 ▶ 지난 호에도 이 난을 통해 '우는 소리'를 했지만 또 하게 되네요. 회보를 제작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광고 부족입니다. 매번 지면제작을 끝내고도 광고면을 채우지 못해 찢찢대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백지광고'를 낼 수도 없고...

구독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나 직장에서 동창회보를 받아보면서도 정작 얼마 되지 않는 구독료를 내지 않고 있는 동문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러니 동창회보 제작은 항상 적자입니다. 제작진으로서의 힘이 빠집니다.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다대포 제3공장



**대선조선주식회사**

대표이사 **안 강 태** (11회, 동창회 명예회장)